

碩士學位論文

신문지면의 독서중력 형태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이 제주지역 일간지의
편집 형태에 미친 영향-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朱 珉 旭

2008年 2月

신문지면의 독서중력 형태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이 제주지역 일간지의
편집 형태에 미친 영향-

指導教授 崔 洛 辰

朱 珉 旭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朱珉旭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2月

Research on the forms of Reading Gravity in the pages of News Papers

- The operation of the subsidy project for the local press and its influence on layout of daily news papers in Jeju Island -

Min-uk Ju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8.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February, 2008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편집 디자인에 관한 논의	5
1. 신문편집의 의의	5
2. 신문디자인의 목적	6
3. 신문디자인의 활용	7
제 2 절 신문지면의 독서중력에 관한 논의	11
1. 독서중력의 의의	11
2. 독서중력 연구의 발전	14
제 3 절 지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7
1. 편집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17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제 1 절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1
1. 연구문제와 가설	21
2. 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및 설명	22
제 2 절 연구방법	23
1. 분석대상 신문	23
2. 표집방법 및 시기	24
3. 분석방법	27
4. 코더 간 신뢰도	31

제 4 장 연구결과	33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사항	33
1. 신문지면 기초통계분석	33
제 2 절 연구문제 분석 및 결과의 제시	34
1.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 비교	35
1) 신문 간 1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35
2)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37
3) 신문 간 1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39
4)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42
2.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 비교	44
1) 신문별 1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44
2) 신문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47
3) 신문별 1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50
4) 신문별 사회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54
제 3 절 연구결과의 요약	57
제 5 장 결 론	61
제 1 절 연구결과 및 논의	6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6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분석표】

【표 차례】

<표 3-1> 분석대상 신문 및 지면 선정	24
<표 3-2> 1년 단위 주 5일 회전식 표집방법에서의 표본추출 간격별 특징	26
<표 3-3> 코더 간 종합적 신뢰도 계수 및 유의도 수준	32
<표 4-1> 분석 신문의 1면/사회면 신문 구분, 기사위치, 기사 제시방법 빈도표	33
<표 4-2>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대상의 선정	35
<표 4-3> 신문 간 기사위치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38
<표 4-4> 신문 간 기사크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44
<표 4-5> 신문별 기사위치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50
<표 4-6> 신문별 기사크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56

【그림 차례】

<그림 2-1> 구텐베르크 도표(Gutenberg Diagram)	12
<그림 2-2> 경사를 인지하는 시선의 흐름	13
<그림 3-1> 신문별 표집시기	27
<그림 3-2> 신문지면 기사 구분	29
<그림 3-3> 신문지면에 기사가 4개일 때 지면 분석 예시	31
<그림 4-1>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선정 이후 신문 간 1면 기사의 위치	35
<그림 4-2>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선정 이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위치	37
<그림 4-3>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1면 기사의 크기	39
<그림 4-4>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신문 간 1면 기사의 크기	40
<그림 4-5>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크기	42
<그림 4-6>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크기	42
<그림 4-7>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 1면 기사의 위치	45
<그림 4-8>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 사회면 기사의 위치	47
<그림 4-9>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51
<그림 4-10>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51
<그림 4-11>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52
<그림 4-12>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기사의 크기	54
<그림 4-13>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기사의 크기	54
<그림 4-14>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기사의 크기	55

【국문초록】

신문지면의 독서중력 형태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이 제주지역 일간지의
편집 형태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신문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이하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과 선정되지 않은 신문에 대한 해당 지면별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그 범위를 제주도내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면은 1면과 사회면으로 한정 하였으며, 독서중력 형태는 지면 내 기사들의 위치와 크기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의 3개 신문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3개 신문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고, <연구문제 2>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3개 신문을 신문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사 수는 1면 1,260건, 사회면 1,544건으로 총 2,804건이며, 분석 신문 모두 1면 보다는 사회면에 보다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분석결과 먼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 모두 1면 기사 배치에 있어 세 신문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기사와 독서중력선과의 거리 역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기사크기에 있어서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전 세 신문 간 좌상지점 기사, 우하지점 기사에서 차이를 보였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는 이와 더불어 중앙지점 기사에서도 기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사회면의 경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는 각 기사와 독서중력선과의 거리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는 세 신문 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세 신문 간 기사크기에 있어서 제주일보의 기사크기가 타 신문에 비해 보다 크게 부각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3개 신문 모두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발전기금 사업이 적어도 도내 신문들의 사회면 외형 변화를 비슷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면에서 기사들의 위치가 서로 비슷해졌음은 물론 그 크기 또한 상당히 유사해졌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를 신문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1면과 사회면 모두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이 선정되지 않은 신문보다 그 변화의 폭을 크게 하고 있었다. 기사의 위치와 크기에 있어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제민일보와 한라일보가 선정되지 않은 제주일보 보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제민일보와 한라일보가 제주일보에 비해 외형 편집형태가 더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제주일보를 비교할 때 전자의 신문들이 후자의 신문보다 독서중력선에 근접하게 모든 기사를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정 지점의 기사가 커지고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기사들의 위치가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주제어: 독서중력, 신문 편집/레이아웃/디자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전과는 달리 현대인은 신문을 자주 접하지 않음은 물론 읽는다 하더라도 꼼꼼히 읽지 않는다. AC 닐슨 코리아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전체 신문구독률은 57%에서 41%, 열독률은 60%에서 43%로 각각 하락하였다(김영욱 외, 2005). 지역신문의 경우,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 일간지의 구독률이 41.5%인데 반해 지역일간지의 구독률은 5.2%에 불과했다. 지역 내 정보 습득마저도 지역신문(6.3%)이 주위사람(21.5%), 지역 TV(19.4%), 인터넷(13.6%) 매체 등에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5). 이는 현대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종이신문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술발달과 접목되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다.¹⁾

따라서 신문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판되는 매체 역시 독자들의 시선 끌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실제 잡지의 경우는 표적시장의 구체화, 세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되어진 목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잡지광고에서 살필 수 있다(데이비드 오길비 저, 이낙운 역, 2003). 구체적으로 잡지 광고 안의 피사체들은 역동적임은 물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도 고차원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변화를 주어 일반적인 페이지와는 사뭇 다른 크기와 모양을 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신문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신문 광고 형태를 탈피하고 돌출광고의 과감성 그리고 왜곡 편집 등을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외지면은 물론 내지면 역시 컬러 광고를 넣는 비중

1) 미국의 경우 195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은 기존의 프린트 미디어와 새로운 경쟁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로 20여년이 지나 이동이 용이하면서 값도 저렴한 비디오 장치의 개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까지도 보다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단어' 또는 '이야기'를 통한 기존의 나타냄을 시각적인 보여짐으로 변화시켰다.

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의도적 광고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로 한 페이지 전체는 기본이고 양 페이지 모두를 하나의 광고로 나타내는 경우도 쉽게 살필 수 있다. 결국 이는 독자들의 보다 높은 주목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편집자들의 의도적인 조작이라 할 수 있다(강은미, 2000; 금창연, 1996).

신문 역시 지면의 외형 변화는 물론 신문 내용의 변화에서 글자체 및 색채의 변화, 디자인·레이아웃의 과감성,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추구해 나감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강호수, 2002; 한라일보, 2006). 하지만 정작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신문 읽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들의 신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읽는 신문도 보는 신문도 아닌 읽고 보기 좋은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독자들이 신문의 내용 이전에 외형 즉 신문 디자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실용연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 외형편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문 디자인의 단순 외형 비교에 그치고 있다(김영훈, 1996; 박재영, 2004; 조의환, 2004; 한윤경, 2005 등). 특히 미국의 이름 있는 신문사들이 신문 편집자와 신문 디자이너를 따로 두고 있음은 물론 외부 신문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신문 디자인 연구를 위한 작업으로 구텐베르크 도표의 독서중력 흐름을 기반으로 지면의 기사 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텐베르크 도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는 왼쪽 상부에서 오른쪽 하부로 이어지는 사선 방향으로의 시선이동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대부분의 종이 신문들이 그 날의 주요 기사를 좌측 상단에 실고 있다. 그리고 이 주요기사는 종종 그 크기를 보다 크게 하여 지면의 중앙을 포함한다. 우측 상단 또한 상대적으

2) 1960년대만 해도 극소수의 미국 신문만이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경쟁적으로 디자인 개혁(redesign)과 페이지네이션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실제 미국 내 신문 중 'The Sun News'는 1988년에 10월에 걸친 프로젝트를 외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진행하였고, 'Colorado Springs Gazette Telegraph'는 1987년에 13월에 걸친 프로젝트, 그리고 'Daily Herald'는 1987년에 6월에 걸쳐 신문 리디자인(redesign)인을 진행하였다.

로 주요기사가 배치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지면의 좌측으로 이동하였을 경우가 더 비중이 높다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기본 흐름을 보인다. 이렇듯 종이신문 지면에 편집자의 의도이든 아니든 간에 각 기사배치 영역별로 피할 수 없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필연의 각 지점을 인간본연의 선천적인 시선흐름과 연결시켜 독자의 정보 이해도를 최대한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문은 바쁜 독자들을 위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사들을 신중히 취사선택 후 이 흐름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그렇지 않은 지점은 어려운 해설기사 혹은 독자로 하여금 상당한 주의력을 요하는 기사가 아닌 사진기사, 도표 등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시간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해 9월 시행령이 마련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배경에는 신문시장의 지역 불균형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여론의 다양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 있다. 더불어 올바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이 필요하나 지역신문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차재영 외, 2006). 이러한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주지역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이하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사를 통해 살펴보면, 인력보강, 장비개선, 취재영역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보나온 신문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라일보의 경우 발전기금 사업에 꾸준히 선정된 저력을 통해 30~40대 독자층, 구체적으로 청·장년 및 여성독자가 선호하는 읽는 신문에서 보기 좋은 신문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확실한 목표독자를 두고 지면 및 내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 최초로 편집매뉴얼(2006)을 제작하였고, 제민일보 역시 스타일북(2007)을 제작하여 취재, 기사작성 및 편집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신문 외형분석을 다루었던 연구들 대부분이 상호간에 단순 외형비교에만 그쳐 이에 대한 조금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기법을 통한 신문 간 외형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발전기금 사업으로 인한 신문들의 외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각각의 신문 간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외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지역신문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신문의 외형을 살폈다.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며, 보다 보기 좋고, 읽기 쉬운 신문 외형편집을 위한 작업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편집 디자인에 관한 논의

1. 신문편집의 의의

일반적으로 신문에서의 편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취재계획으로부터 지면제작 완료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뜻한다. 반면 좁은 의미로는 취재에 대한 대립개념으로서 원고를 정리하여 표제를 붙여 그것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지면에 배열하는 작업을 말한다(최종수, 1980). 다른 한편으로는 한 신문이 자기 독자에게 읽고 싶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작용하는 의지와 기술의 전체(全體)를 말한다(최진우, 1994). 한편 편집 레이아웃 또는 지면구성이란 지면 배정을 일컫는 말로 인쇄할 지면 안에 글자나 그림 등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작업을 말한다(조성현, 1990). 혹은 그 내용의 경중(輕重)을 가리기 위해 글자와 사진, 제목, 삽화, 그래픽 등을 분류, 정리, 배열하여 신문이 자기지면에 그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제민일보, 2007).

이상에서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신문에서의 외형 편집에 있어서는 그 용어를 편집 즉 'Edit'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Design' 또는 'Layout'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실용적인 신문편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온 미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Edit'의 경우는 신문의 외형변화에도 관여되지만 이 보다는 '교정'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로 인해 이를 넓은 의미로서 편집자를 일컫는 'Editor'로 연장하여 이해함이 더 적절하며, 실제 미국에서는 신문편집자이되 디자인을 주 임무로 맡고 있는 이를 두고 'Design editor' 혹은 'Layout editor'라고 부른다. Cecilia Friend 외(1999)에 의하면 여기서 디자인과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는 크게 따져 상호교환 가능한 용어이다. 몇몇의 편집자들에 의한 그 구분이 있기는 하나 보편적이지는 않으며, 단지 잡지와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인 경우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오래된 신문의 경우는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용어 모두 시각적인 배치를 강조하기 위해 지면

의 어느 곳에 헤드라인, 사진, 그래픽 그리고 텍스트 등을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음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임에는 별 무리가 없다.

2. 신문디자인의 목적

최근 미국의 신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WED³⁾라는 저널리즘 개념은 기존의 기사작성(W)과 편집(E)에 디자인(D)이 제3의 축으로 부각된 형태를 말한다. 이는 더 이상 디자인 분야가 신문 제작의 보조수단이 아닌 취재, 편집과 대등한 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자와 시각 이미지 간에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기사작성이 이성적이라면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감성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야 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 감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이를 위해 신문 지면은 첫째, 정보를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고안되었으며, 둘째, 딱딱한 활자논리 보다는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지면으로 바뀌게 되었다(이배영 외, 2001). 그리고 편집 디자인은 하나의 목표, 즉 언론의 전달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이다. 하나의 기사가 지면을 떠나 독자의 가슴 속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젠 화이트 저, 안상수 외 역, 1996). 따라서 편집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편집, 구성, 정리하여 이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있다. 보통 신문에서의 디자인이란 특정 지면 혹은 스크린에 이야기, 헤드라인, 사진 그리고 그래픽 등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정렬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독자들이 하여금 이해를 이끌어 내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함으로 의도한 행위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김두식, 1993).

구체적으로 좋은 디자인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ecilia Friend, 1999). 첫째, 디자인은 출판물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독자들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 만큼 뛰어난 디자인은 그것에 대한 강한 인상을 줄 것이고, 해당 출판물에 대한 스

3) 미국의 신문디자인 학자인 마리오 가르시아 박사에 의해 제기된 이 개념은 신문 제작의 3대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사작성(writing), 편집(editing), 그리고 디자인(design) 등 세 낱말의 머리문자를 모아 만든 약어를 말한다.

타일과 남다름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좋은 디자인은 지면 혹은 스크린의 분위기를 인지하게 한다. 누구든지 글을 읽기 전까지는 그 글이 어떠한 글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좋은 디자인은 독자들에게 그것이 읽기 쉬운 연성뉴스인지 아니면 읽기 어려운 경성뉴스인지에 대한 분위기 및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셋째, 디자인은 독자들이 각각의 뉴스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간소화 한다. 이는 사진으로부터 헤드라인 그리고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읽기관행을 도와주며, 독자들이 하나의 관심사에 집중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사에서 또 다른 곳으로의 쉬운 이동을 허용토록 해준다. 결국 편집이 잘된 지면은 독자들의 시선흐름을 용이하게 해주어 그들이 다음 기사 등을 찾아 가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넷째, 좋은 디자인은 독자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현대의 뉴스 독자들은 빠른 속도를 추구한다. 따라서 편집자들은 기사들을 무의미하거나 단순하게 배치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배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일의 신문 지면을 비슷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덜어준다던가 웹사이트 상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관련 사안으로의 빠른 접근을 가능케 해주는 하이퍼링크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단순히 순수미술에서처럼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문에서의 지면 역시 뉴스라는 상품을 단지 아름답게 포장 진열 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외형상의 구성이 아닌 것이다. 실제 신문 디자인은 시각적 기호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각 디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신문 디자인은 시각에 호소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임을 의미한다. 이배영 외(2001) 역시 지면편집을 할 때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근거한 지면배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각 지면에 맞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으로 신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3. 신문디자인의 활용

출판물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신문 디자인 원칙은 비슷하다.

무엇보다도 좋은 디자인은 균형(balance), 대비(contrast), 비율(proportion), 통일성 혹은 조화(unity or harmony), 대칭(symmetry), 반복(rhythm)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이해를 통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해당 신문 페이지의 목적 및 독자들의 흥미를 예상하는 것 등에 대한 편집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실제 활용되어진다(최종수, 1980; 최진우, 1994; 이상우 외, 1995; 금창연, 1996; 임영호, 2005).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각 신문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각 지면의 내용이나 사진 활자들이 전체 지면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 같은 형태로 관련 요소들을 모아 지면 전체의 통일성 혹은 조화(unity or harmony)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그 신문의 동일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고, 그들의 독이성 및 이해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지면을 등분할 때나 사진을 지면에 넣을 때 분할된 면적 또는 사진의 한 변과 다른 변 간의 일정한 비례(proportion)를 유지하여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 혹은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진을 비롯하여 기사 제목, 컷, 본문활자, 그리고 삽화 간의 적절한 분배 등을 의미한다. 셋째, 문자, 사진, 그림, 선, 색깔 등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간의 배열효과를 통한 대조(contrast)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치수에 의한 크고 작음의 효과, 색에 의한 밝고 어두움의 효과는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장치로 쓰이고 있다. 넷째, 지면이 정적일 경우, 포인트를 두어 이를 강조(accent)하면 긴장의 효과로 인해 지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여 독자의 시선과 관심을 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면 구성에 있어 규칙적인 힘과 악센트를 가지고 움직임 을 느끼게 하는 생동감(rhythm)을 두어 완전한 균형이나 지나치게 규칙적인 조화에서 오는 일정한 패턴을 벗어날 수 있다. 덧붙여 양쪽간의 무게균형을 느끼게 하는 완전균형과 무질서함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불완전균형 등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Roy Paul Nelson의 출판물의 레이아웃 원칙에 의하면(Robert Bohle, 1996) 첫째, 시각적인 혹은 공간적인 무게를 나타내는 균형(balance)이다. 시각적인 무게는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것이 규칙적인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 지면에서의 여러 기사들은 이러한 상호간의 균형관계를 통해 보다 더 강조 또는 축소되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균형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모습을 띄거나 비슷한 크기의 기사들을 지면에 위치시키는 것이나 이는 자칫하면 지루하고 의미 없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진기사일 경우 보다 큰 사진을 지면의 중앙 부근에 위치시키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진을 오른쪽 하단 부근에 위치시키는 것이 두 사진기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다.

둘째, 상호간의 크기 또는 공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proportion)이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황금비율은 1:1.618인데 이를 통해 신문지면에서 각각의 기사들을 사각형으로 구분하면 보다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신문지면에 적용하면 지면의 공간적인 중심이 실제 중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의 여백을 1로 보았을 때 위의 여백은 이에 0.618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최적이다.

셋째, 대조 혹은 강조(contrast or emphasis)는 독자들이 신문을 접할 때 처음 눈이 들어서는 지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Mario Garcia에 의해 이름 붙여진 CVI(center of visual impact)에 의해 설명된다. CVI는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그 안의 기사들은 서로간의 충돌을 일으켜 독자들을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CVI는 앞서의 균형(balance) 하에 놓일 수 있는데, 이는 보다 길고, 크고, 두껍고, 무거우며 색이 들어가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강조되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순서(sequence)는 처음 독자들이 지면을 접하고 이후에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은 위에서 아래로 기사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도 지루하고 특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상의 선을 두어 이 선 위에 기사들을 위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그리고 색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흐름을 통해 그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신문지면에서 각각의 기사들 간 구분 짓기를 나타낼 수 있는 통일성(unity)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안이라도 기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의 기사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날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의 것들을 한데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가볍고 유익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영역 안에 서로 뭉쳐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신문 전체적인 글자체와 제호, 지면명 등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사 간을 구분하는 그 구분선의 굵기 혹은 기사의 크기, 분위기는 어중간하게 비슷하기보다는 서로 같거나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통일성은 앞서의 대조와 충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문편집 전반에 걸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며, 너무 이에만 의존하면 진부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조 및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역시도 우후죽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기사와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간소함(simplicity)은 지면 전체 레이아웃의 간소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칫 지나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면 내 각각의 기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독자들은 신문의 화려한 디자인 보다는 그 내용에 무게를 둔다. 결국 신문 디자인으로 신문을 선택하고 더불어 내용까지 쉽게 받아들이고 상기시키고 있다면 이는 굉장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신문학자 Edmond C. Arnold가 편집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KISS 법칙’은 “Keep It Simple and Short”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간단’, ‘명료’라 할 수 있다. 결국 신문디자인 역시 레이아웃의 대원칙인 단순성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는 작업인 것이다.

한편 임준수(1995)는 신문의 레이아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지면의 무게감을 통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신문 지면의 외형적인 지면체제는 안정감과 맞닿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형태는 가로체제의 경우 삼각형인데 반해 세로체제에서는 역삼각형이다. 둘째, 안정 속에서의 변화로 아무리 안정감이 있는 지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가 없다면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 특히 뉴스면에서의 변화는 톱기사의 처리에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단 뉴스면 뿐만 아니라 신문지면 전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면의 구획정리가 필요하다. 도시의 구역이 잘 나누어져 있듯이 뉴스면을 보기 좋게 구획화하여 ‘블록편집’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과·연과 지면양식이 다르다. 이는 신문지면 및 게재되는 기사의 성격에 맞게 지면을 편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레이아웃만으로 지면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컷·도표도 사진효과를 낸다. 일

반적으로 지면의 딱딱함은 글로만 채워진 기사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진 등의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사진 활용이 어려울시 컷 제목 또는 도표의 활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박스의 활용이다. 이는 지면의 시각적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사를 박스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기사의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두 개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절 신문지면의 독서중력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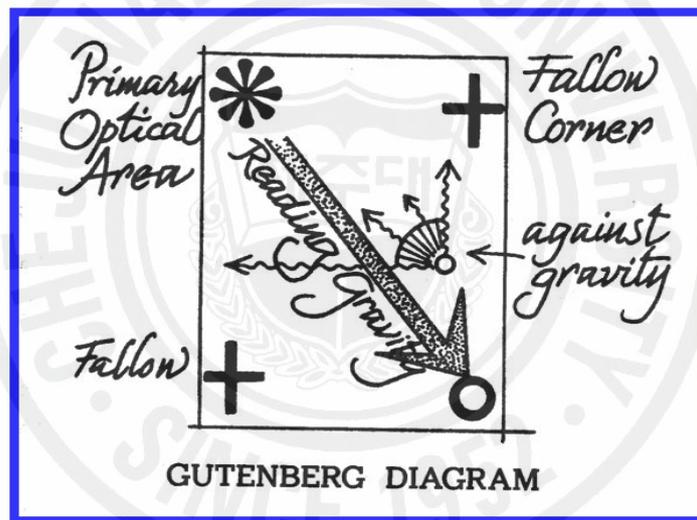
신문 편집자는 해당 지면을 디자인하는 동안에 그 모든 콘텐츠들이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호기심을 유발토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을 통해 좋은 편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기 좋은 페이지라 할지라도 그 시작점 즉 처음 눈이 머무르는 지점을 확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읽는 이 혹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의 시작점은 이후에 이어질 시선의 지점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처음의 자극적인 이끌림이 뒤에 이어질 지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은 상호간에 최적의 시선흐름을 감안하고 지면 편집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스포츠면의 경우, 중앙부분에 그날의 가장 눈에 띄는 사진 기사를 배치한다. 독자들은 그 곳에 먼저 시선을 두고 다음 읽을거리 혹은 볼거리를 찾는다. 만약 이후에 지면의 어느 곳에도 다음 시선흐름을 유도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독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독서중력의 의의

신문지면 편집의 파격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지금이지만 과거 전통적인 독자들의 신문읽기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는 구텐베르크 도표(Gutenberg Diagram)에서 기사의 흐름과 시선의 집중을 정의한 독서중력이 여전히 신문지면에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서중력이란 주사지역

(primary optical area: POA)에서 종점지역(terminal area: TA)까지의 독서대각선상의 흐름을 일컫는 말로, 그 시점은 신문지면의 좌상에서 우하로 이어진다. 이 이론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시선 역시 지구중력을 역행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문 읽기에 있어 독서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싫어함에 다른 기사를 읽기 위해 다음 줄로의 시선 이동 중에는 기사를 읽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의 독서중력 및 중력역행의 개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눈의 자연스러운 운동을 일컫는 독서의 방향축(axis of orientation) 개념과 더불어 독이성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구텐베르크 도표(Gutenberg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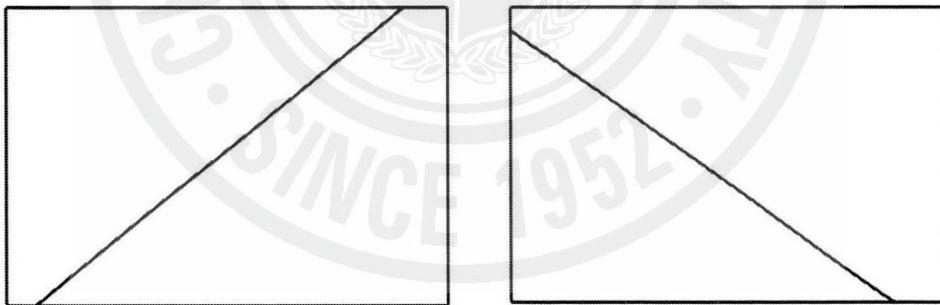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은 어떠한 지면일지라도 해당 지면의 왼쪽 윗부분(upper left)을 통해 들어선다(Robert Bohle, 1990). 하지만 신문편집자들이 지면에서 특정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보다 눈에 잘 띄는 기사를 통해 그 지점이 어디든 관계없이-심지어 전통적으로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무른다는 오른쪽 아랫부분(lower right)으로-독자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후 다시 위로 움직여야 하는 시선 움직임에서 나타나는데, 어느 누구도 독서중력에 역행되는 그래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각적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끌게 하는 페이지는 눈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이끌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혼란스러운 페이지보다도 읽기 쉬운 물론 그 이해도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또한 지면에서 네 끝점을 교차했을 때 생기는 교차점은 단지 수학상의 중심 (mathematical center)이며,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상의 중심(optical center)은 그와 일치하지 않고 그 보다 약간 위편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출판물의 경우도 실제로는 아랫부분의 공간이 윗부분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J. William Click 외, 1990). 여기서 우리들의 시선이 지면에서 생각보다 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독서중력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눈의 흐름과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태의 출판물이건 편집 시에 고려되어져 왔던 경험적 패턴의 이면에는 독서중력 흐름이 수반되어져 왔음이 이를 증명한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 인간 시선의 흐름이 좌에서 우로 향함으로 인해 좌측의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반면 우측의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경사를 인지하는 시선의 흐름



이러한 독서중력 흐름은 영상매체에서의 우향 주사 패턴으로도 나타나는데, 스크린에 나타나는 피사체들의 좌우배치에 의한 형태가 보는 이의 감정에 관여하여 그들의 몰입 단계에 관여한다. 즉 화면 좌측에 인물이 놓여 있는 경우가 화면 우측에 놓여 있는 경우보다 관객의 관여도를 높여 보다 직접적인 자극,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화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좌측), 원인을 제공하는 이(우측)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이끌 수도 있다(신동규, 2004).

결국 영상에서의 좌에서 우로 향하는 인간 본연의 시선 흐름 역시 이야기의 물입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

2. 독서중력 연구의 발전

독자나 이용자들의 시선의 흐름을 알아보하고자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형태와 느낌은 달리 나타나고는 있으나 상당부분 구텐베르크의 독서중력 도표에 근거한 실험연구 혹은 연구설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의 실제 시선 흐름을 알아보하고자 했던 점과 그 결과 역시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형태 그리고 지면의 좌측 상단이 높은 주목도를 갖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에 지면 내 주요 콘텐츠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독자들의 시선 시작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처음 시선의 머무름에 대한 접근이지 얼마나 그 곳에 오래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정도 혹은 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어지는 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후에는 독자들이 독서중력에 근거한 시선 이동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음 콘텐츠로의 시선 이동에 있어 중력을 거스르는 눈의 움직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독서중력 연구의 연장

독이성과 관련하여 신문이 어떻게 제작되는 것이 적합하고, 또 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관련 이론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브란트의 'The Psychology of Seeing'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각의 중심점은 지면의 한가운데, 즉 수학적 중심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의 중간 위편 상위좌측에 있음을 발견했다. 두 번째 랭돈과 존스의 '초점찾기 이론'은 신문의 네 끝을 기점으로 대각선을 긋고 그곳에 삼각자를 놓아 삼각자와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을 찍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4곳의 시각적인 초점 포인트는 중요 기사를 배치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아놀드의 'Natural Movement of Reading Eye 이론'에서는 독자들이 신문을 읽을 당시 시선이 왼쪽이 중심축이 되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아래쪽으로 이동된

시선은 다시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때 오른쪽으로 갔던 눈이 왼쪽으로 갈 때는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네 번째 웨슬리의 ‘Skimmer’s Eyes Map’에 의하면 독자 중 지면을 대충 훑어 읽는 사람들은 그 기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건 간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에 눈이 먼저 가고, 이후 정상적으로 눈이 왼쪽으로 옮겨진 뒤 아래쪽으로 가며, 오른쪽으로 읽어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길모어의 ‘Reverse-6 패턴’은 마치 아라비아 숫자 ‘6’을 뒤집어 놓은 형태처럼 독자들의 시선은 지면의 왼쪽에 먼저 놓이게 되고, 오른쪽을 거쳐 아래로 다시 왼쪽,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중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연구소(2006)의 ‘안구이동 연구’는 독자들이 페이지를 처음 접할 시 어느 부분에 먼저 주목하는가에 대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연구로, 그 결과 독자들은 대개 사진이나 그래픽 또는 커다란 헤드라인 등 강력한 시각적 요소가 있는 곳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를 통해 처음 노출 되어진 자극에 대해서 독자들은 미리 정해진 법칙을 갖고 지면을 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다.

독자들은 보통 신문을 접할 당시 처음 사진을 보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색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살핀 다음 헤드라인을 거쳐 기사의 본문을 읽는다. 이는 1985년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에 의해 연구되어진 독자들의 신문지면상의 시선흐름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시선 움직임에 관한 연구는 갤럽 협회(Gallup Organization)에 의해 이어지게 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독자들은 지면에서 크거나 굵고 과감한 혹은 불규칙적인 기사 또는 색이 들어간 부분에 시선이 먼저 가는 경향을 보였다(Robert Bohle. 199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독자들의 지면 열독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과 결부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우선 독자들의 열독행태는 시각적 혹은 감성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독자들은 기사의 제목, 사진, 그림 그리고 그래픽 등 호기심을 끌만한 요소들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자들은 눈에 거슬리는 흐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중력역행과 독서의 방향축 개념은 독자들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함에는 거부감이 없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충분할 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의해 의제설정

되어진 지면 배치가 존재한다. 이는 각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독자들의 열독행태는 지면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그 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형태심리학과 의 관계성

이상이 독서중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관련 연구라면 보다 넓은 사고에서 접근 가능한 연구들 역시도 존재한다. 수신자의 상황적 판단에 있어 의식적 또는 비의식적 행위를 조사, 연구하는 형태심리학 연구는 독서중력 연구와 그리 멀지 않는 관련 연구로 충분한 숙고의 여지가 있다. 1920년대 형태지각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은 지각적 구성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점차 지각적 현상들과 관계가 있는 일련의 실험과 시도들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특정 사물 또는 자극에 대해 지각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그 시각적 경험의 총체적 효과를 다루었다(찰스 왈쉬 외, 원유홍 역, 1998; 조영제 외, 2000).

형태심리학자인 John R. Anderson에 의하면(Robert Bohle, 1990), 우리들의 시각적인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에 대한 패턴에 의해 채로 걸러지는데 이러한 작용은 다음 몇 가지의 경험일 경우에서 쉽게 나타난다. 우선 같은 형태를 인지하고자 하는 유사점(similarity)을 들 수 있다. 이는 그것의 모양, 색감, 크기, 위치 또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하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른 그 판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색감이 들어 있지 않은 각각 3개씩의 삼각형, 사각형, 원형의 도형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양만을 보고 각 그룹별로 구분 지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같은 상황에서 몇몇 모양체에 색감이 들어가 있다면 앞서와 같이 그것을 모양에 따라 구분 짓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색감이라는 변수에 의해 색감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 짓는 이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순간 받아들여지는 대상에 대한 유사점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모양체간의 근접성(proximity)이다. 유사한 기사간의 관계가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분명 보는 이는 이에 대한 편안함 혹은 익숙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같은 크기의 4개의 점이 있어도 같은 간격으로 마치 송이지어 있듯

이 나타나 있는 것은 한 점이라도 나머지 점들과 벗어나 찍혀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어서 최상의 연장(good continuation)으로 이는 그것이 비록 따로 나타내어진 몇몇 개의 모양체들의 파편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이가 상호간의 배치를 통해 확실한 대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야함을 말한다. 이를테면 사각형에 반쯤 포개진 원형의 모양체가 있다면 그 뒤에 포개진 원의 반쪽을 확실히 그릴 수 있도록 생각을 연장 즉 지속(continuation)가능케 할 수 있어야만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형태와 심리적 확실감(good form and closure)인데 이는 불안정한 모양체가 있다면 그 대상을 완성시키고자 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작용이다. 시각을 통한 눈의 움직임이 본능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두뇌에 의한 인지적 작용이며,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사고의 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머지 나타내기, 또는 빠진 그림에서 전체 그림을 추론해 내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여기서의 심리적 확실감은 덧붙여 사고의 전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제 3 절 지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편집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편집 디자인과 관련하여 근래의 연구 형태를 살펴보면, 조의환(2004)은 신문의 시각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는 신문 지면의 디자인 요소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뉴욕타임스, 가디언, 조선일보의 종합면, 경제면, 스포츠면의 프론트면을 중심으로 이를 접근하였다. 세부 분석 항목으로는 ‘지면의 구성요소’, ‘칼럼과 마진’, ‘포맷’, ‘타이포그래피와 여백’, ‘사진’ 그리고 ‘선’ 등 6개 분야를 두었다. 그 결과 세 신문은 구성상의 특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프론트면에 게재되는 광고의 유무와 크기는 물론 지면 그리드의 포맷, 기사 수, 기사 길이, 서체, 사진 크기, 지면의 회색도 등 많은 부분에서 두 신문 대 한 신문 또는 세 신문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종합하여 볼 때 가디언의 경우, 지면의 모

든 디자인 요소들이 엄격한 매뉴얼에 의해 적용되고 있어 가장 디자인적인 신문이라 평하고 있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경우는 지면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 요소 및 포맷이 변화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흡사하다고 보고 있으나, 뉴욕타임스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모든 면에서 다양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재영(2004)의 연구에서는 신문지면 외형분석을 한미일(韓美日) 신문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스, 요미우리신문, 조선일보에 대한 신문 간 분석 영역을 10개로 폭넓게 두어 요일별, 섹션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면의 수(뉴욕타임스)는 물론 컬러 선호도(조선일보), 점프기사 선호도(뉴욕타임스), 기사크기(뉴욕타임스), 기사 게재 수(요미우리신문), 기사 길이(뉴욕타임스), 광고 수(요미우리신문) 및 크기(조선일보), 제목의 수(조선일보), 사진 수(뉴욕타임스) 및 크기(뉴욕타임스) 등에서 상호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냈다. 반면 손태규(2004)는 정치보도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입장을 지면의 외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한미일 신문 간 비교에서 뉴욕타임스, 요미우리신문, 조선일보 간의 신문 정치면의 서술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신문 모두 1면에서는 어떤 뉴스보다 정치 뉴스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 1면 이외의 기사는 뉴욕타임스 대 요미우리신문과 조선일보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세 신문 간에 가장 많이 다루는 정치 의제는 서로 달랐으며, 기사 작성 스타일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면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실제 관련 지면을 제작하는 연구도 있는데, 김영훈(1996)은 국내외 신문의 1면 편집디자인을 분석하여 어떠한 구조의 그리드 시스템을 운영하며, 그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그 분석을 토대로 편집레이아웃 장치로 이용되는 그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물로 직접 제작하였다. 그 결과 신문에 있어 편집요소를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모든 디자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관련 기사들 간의 블록화 및 통일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운경(2005)은 국내 3사의 주요 일간지를 선

정하고, 이들 일간지의 4주 분량 주말 섹션을 채택하여 레이아웃이 각 구성요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제작한 주말 섹션면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면에서 독창적인 뉴스내용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가능한 단순하고 명쾌한 레이아웃과 비중이 큰 시각물을 우선 배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교하면서도 어느 정도 화려함을 절제한 디자인과 좋은 활자체를 활용한 신문이 좋은 디자인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권혁순(2002)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한국신문과 서구신문의 시각적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활자와 선, 여백은 물론 사진, 그래픽 등이 미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목의 경우는 한눈에 그 의미가 전달되도록 보다 함축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가져야 함을 역설하면서 세련된 편집은 단순하고도 확고한 원칙의 수립에 기반을 둔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신문이 과거 일본식 세로짜기에서 지금의 서구식 가로짜기로 변화함에 따라 준비 없는 편집 시스템의 채택과 맞물려 특징 없이 증면만 되어 온 지면은 원칙 없이 기사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운선(2003)은 이러한 얼굴 바꾸기의 이면에는 외양에만 치우쳐 그 얼굴과 조화를 이뤄야 할 건강한 신체, 정신과 같은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너무 소홀하여 왔음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 신문의 가로짜기 편집의 문제에 대한 정태철(1998)의 연구에서 지면 편집의 기본인 모듈러 편집에 대한 국내 신문들의 인식은 그저 기사를 사각형으로 배열하여 독자들의 독이성을 높이는 방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혀냈다. 또한 국내 신문들이 기사를 가급적 사각형으로 편집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미식 모듈러 디자인의 기초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신문 외형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신문편집디자인의 색채조절 도입에 관한 연구(박희성, 2000)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문의 색채 사용의 문제점은 색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신문이 마케팅 측면에서나 디자인 측면에서 색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색채조절에 대한 디자이너 스스로의 인식이 부족하며, 기업측면에서 색채조절에 대한 체계가 없어 색

의 사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신문 외형을 살펴본 연구들은 신문 간 비교에 있어 국내는 물론 국외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분석지면에 있어서도 1면은 물론 사회면, 스포츠면, 주말 섹션면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에서는 신문 간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지면을 제작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신문 간 단순 외형비교만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호 신문 간 변화를 알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이유 및 시사하는 점 그리고 실제 신문 외형편집에 대한 제언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와 가설

앞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독서중력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는 해당 신문들이 발전기금 사업 전후 신문 간 또는 신문별 시·공간적인 편집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이라는 외부요인이 제주 지역 일간지의 편집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전후라는 시간적 차이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사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반면 선정되지 않은 신문사의 경우는 그로 인한 주변적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신문별, 시기별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실제 신문지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독서중력을 인식·활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신문지면 편집의 틀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집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발행 중인 일간지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신문 간 그리고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 연구문제 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2. 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및 설명

- 독서중력 형태: 본 연구에서의 독서중력 형태는 ‘기사위치’와 ‘기사크기’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면 내 해당 기사들이 독서중력 흐름을 얼마나 수용하면서 지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그 크기 즉 지면 내 비중이 주변기사의 위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독서중력 흐름을 변화하게 만드는지 등을 가지고 독서중력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들의 위치는 임의로 그려진 독서중력선과 각 기사들의 좌측상단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그리고 그 크기는 지면 내 실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산출해 나타냈다.
- 독서중력선: 구텐베르크 도표에서의 독서중력은 지면의 좌상지점에서 중앙지점을 거쳐 우하지점에 이르는 기본적인 시선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독서중력선은 이러한 시각적인 흐름을 수학적 선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중력선을 1면과 사회면에 사선으로 나타내어 이를 가지고 지면 내 각각의 기사들과 이 선과의 거리를 통해 그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신문 간 또는 신문별 같은 독서중력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가능하다.
- 기사들의 위치 및 크기: 본 연구에서 기사들의 위치는 해당 지면에서 기사들이 위치해 있는 지점을 말한다. 또한 기사들의 크기는 해당 기사들이 지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독서중력선에서 각각의 기사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퍼져있는지에 대한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다. 한편 기사는 지면에 주로 위치해 있는 구성요소를 의미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기사 외에 여타의 콘텐츠(contents)⁴⁾ 역시 기사와 같은 가치로 판단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신문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는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총 4개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위 4개 신문 중 제주타임스를 제외한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3개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당신문들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제주타임스의 경우는 다른 신문에 비해 1면에 실리는 기사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기사배치 확인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다 비중 있는 기사들이 토막기사들을 배치키 위한 작업에 의해 그 위치와 크기가 영향을 받고 있음에 문제가 되었다. 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비중 있는 기사들을 어느 정도 배치 후 그 나머지 공간을 토막기사들이 채우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내 타 일간지보다 적은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한계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 실제 다른 신문 1면에서는 그날의 주요 뉴스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제주타임스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타임스를 배제하였다.

3개 신문에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편집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신문지면은 ‘1면’, ‘사회면’, ‘경제면’인데,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포함된 지면은 신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면과 내지면을 대표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기사거리와 기사들에 의해 취재·편집되어 지고 있는 사회면이다.

한편 3개 신문의 나머지 지면들을 살펴보면, 모든 신문이 종합면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개가 이 면의 좌측에 사설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기사들의 지면배치에

4) 어떠한 형태로든 신문지면에 실려 해당 지면 편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사, 사진기사, 사고(알림), 그래픽, 도표, 광고 등의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을 말한다.

5) 가, 나, 다 순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3개 신문 모두 지역면을 두고 있는데 모두가 공통적이기 보다는 관할지역별로 또는 관할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지면을 번갈아 구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에 공통적인 지역면을 구분하기란 어려웠다. 스포츠면의 경우, 거의 모든 기사가 통신사에서 받은 정형화된 기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수정 및 삭제 등을 통한 편집 작업이 수월한 다른 지면과는 달리 기사배치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면은 기자의 직접취재 형태가 아닌 도서 및 문화행사·공연 소개 등과 특히 외부필진에 의한 작품해설, 공연평가, 새로운 문화공연 소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표 3-1> 분석대상 신문 및 지면 선정

구 분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1면◇	유 사			토막기사를 비롯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음.
종합면	사설이 지면 좌측면에 위치함.			
지역면	대체로 공통적이나 때에 따라서 지면이 달라짐.			초반에는 다루지 않다가 이후에는 등장함.
사회면◇	유 사			
경제면	유 사			타 신문과 달리 지면 좌측에 경제지표 및 감귤시세가 박스형으로 제시되고 있음.
문화면	책과 문화행사 소개, 외부필진에 의한 작품해설 그리고 문화공연 소개가 많음.			
스포츠면	거의 모든 기사가 통신사에서 받은 정형화된 기사들임.			

* ◆ 연구대상에 포함된 신문사, ◇ 연구대상에 포함된 지면

2. 표집방법 및 시기

신문의 내용분석은 연속 주 표집(consecutive week sampling)보다는 주 구성 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연속 주 표

집일 경우 특집편성 및 주요사건에 의한 변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반년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는 주 구성 표집의 경우 1주를 표집하고, 1년의 경우 2주를 표집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요일별로 2일만(총 14일) 추출하더라도 1년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4주를 표집 하는 것이 2주를 표집 하는 것보다 그 신뢰도는 0.00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조영신 외, 2006).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 첫째, 당시 신문분석을 실시한 시점이 현재로부터 40여 년 전의 일이며, 공간적으로도 국내 신문 내용분석은 물론 외형분석 적용여부에 대한 그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와 같은 신문의 외형분석은 내용분석과는 달리 하루치 신문에서 얻어지는 분석내용이 극히 한정되기 때문에 그 표본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⁶⁾ 이는 통계분석에서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유추하는데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치 이상($n \geq 30$)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신문 내용분석 역시 하루치 기사건수의 총합이 아닌 표본추출 되어진 날짜를 통한 모집단 유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 단위의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 30을 만족시키면서 최소 한 달에 네 개 이상의 표본추출을 원칙으로 표집간격을 5일로 정하였다. ‘주’와 ‘요일’을 회전시키는 회전식 표집방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⁸⁾한 주 5일 표본추출에 따른 표집간격 및 그 특징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6) 예를 들어 신문 1면의 디자인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하루치 신문에서 나올 수 있는 분석내용은 1면이 하나 밖에 없으므로 해서 하나의 샘플 밖에 없다. 반면 신문 1면의 기사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낼 수 있다.

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전식 표집방법과정에서 ‘주’와 ‘요일’뿐만 아니라 표본추출 되어진 날짜의 ‘지면별 기사’ 역시도 회전식으로 추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표집 날짜를 늘릴 수 있음과 동시에 해당 날짜의 기사들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경험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는 달팽이 형태로 기사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8) 제주지역 일간지의 경우 일요일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제민일보의 경우 2005년 9월 10일 ‘e터치’에 이은 이후 2006년 1월 21일부터 ‘Week & 팡’이라는 제목 하에 1면뿐만 아니라 속지면 역시도 특집면으로 꾸며지고 있었으며, 한라일보 또한 2006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Week & 주말의 향기’라는 특집면으로 1면의 변화는 자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속지면의 경우 보통 주일과는 다른 형태로 꾸며지고 있음으로 해서 타 신문과의 비교연구가 적절치 않아 분석 요일에서 제외하였다.

<표 3-2> 1년 단위 주 5일 회전식 표집방법에서의 표본추출 간격별 특징*

표집간격	특 징
5일 이하	표본이 50개 전·후 필요 시 유용함. 하지만 50개 이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재표집 시, 첫 번째 표집일에 이은 다음일이 반복적으로 표본추출 될 수 있음. 다시 말해 1년 주기 이후 표본을 맞추기 위해 다시 첫 달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할 당시 그 처음이 앞선 표집 다음 날로 선정되었다면, 이후 선정되어지는 표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표본추출 되어짐.
6일	표본이 40개 전·후 필요 시 유용함. 만일 그 이하이면 1년 주기를 다 돌기도 전에 모든 표본이 추출되어져 버림. 앞서와 마찬가지로 4주 때로는 5주 연속 표본추출 되다가 이후 2주간은 표본추출 되지 않음.
7일	같은 요일만 반복되어짐. 결국 주는 회전 되지만 요일은 회전 되지 않음.
8일	표본추출 방법은 용이하나 4주 연속 표본추출 되다가 3주간은 표본추출 되지 않음.
9일	표본이 30개 전·후 필요 시 유용함 표본추출 날짜 간의 간격이 1주에서 2주로 적당함. 하지만 요일이 2달 간격으로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대체적으로 홀수 달은 월, 수, 금 그리고 짝수 달은 화, 목에서 표본추출 됨.
10일	이 역시도 표본이 30개 전·후 필요 시 유용하며, 표본추출 날짜 간의 간격이 1주에서 2주로 적당함. 앞서 와는 달리 각 달별 요일 변환 과정이 상대적으로 다양함. 간혹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홀수 달과 짝수 달 구분 없이 이루어짐. 단 날짜의 끝자리 수가 반복되어짐으로 인해 모집단이 이에 따른 규칙적인 패턴이 없어야함.
11일 이상	표본이 약 25개 이하 필요 시 유용함. 표집 간격이 넓음으로 해서 한 달에 하나의 표본만이 추출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기존 연구의 경험적 패턴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임.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 유추 대비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해서 표집간격을 좀 더 세밀하게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최종적으로 5일이라는 표집간격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표집시기를 신문별로 조금씩 달리 하였는데, 이는 사업 선정이 1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문이 있는가 하면 2회부터 혹은 한 번도 선정이 되지 않은 신문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라일보의 경우, 2005년 8월 1차 사업에 선정된 달을 제외한 전후 1년씩을 표집 하였으며, 제민일보는 2차 사업에 선정된 2006년 2월⁹⁾을 제외한

9) 제민일보의 경우 2차 사업에 선정된 지점이 2006년 1월 26일이었으나 해당 월의 끝인 관계로 선정 전후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다음 달인 2월을 선정된 지점으로 잡았다.

전후 1년을 표집 하였다. 제주일보 역시 제민일보와 같은 표집시기를 잡았다.

최종적인 표집시기는 한라일보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을 이전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을 이후로 잡았으며, 제민일보와 제주일보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을 이전으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을 이후로 잡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별 10주씩을 표집¹⁰⁾, 신문 간 그리고 신문별 상호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별로 사업 전후 각각 1년 기준 50일치씩을 선정하고 1면과 사회면 합쳐 100개 지면, 3개 신문 총 600개 지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3-1> 신문별 표집시기

-한라일보 표집시기-

선정전												선정	선정후															
2004년					2005년												2006년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제민일보, 제주일보 표집시기-

선정전												선정	선정후															
2005년												2006년												2007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분석방법

1) 신문지면의 분할

어떠한 출판물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지면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편집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드(grid)이다(김두식, 1993). 사전적인 뜻으로는 격자, 바둑판의 눈금 등을 말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 수직선을 그어 만든 조직망이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의 선으로 면을 나누어 본문, 사진, 그래픽 등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위한 일

10) 각각의 신문을 표집 함에 있어 사업 선정 지점이 해당 년의 1월이 아님으로 해서 요일별 10주씩을 구성 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한라일보의 경우 표집 요일 중 사업 이전에서 목요일 하루가 덜 표집 되어 2004년 12월 마지막 표집 일로 시작하여 해당 목요일 하루를 더 표집 하였다. 나머지 신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종의 ‘모눈종이’라 할 수 있다(강은미, 2000). 이렇게 지면 목적에 맞춰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나눈 그리드는 제목, 사진, 그래픽 또는 기사 등을 효과적인 비례로 분할하여 배치토록 도와준다. 신문에서의 가로세로 망 역시 일종의 그리드라 할 수 있다. 그리드에서의 세로 분할인 ‘칼럼(column)’을 신문에서는 ‘단’이라고 일컫고 있다. 신문 1면의 경우, 세로(높이) 6-7단, 가로 90-100행을 기준으로 지면 편집을 한다.¹¹⁾ 이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지면의 모든 콘텐츠의 길이 및 폭을 결정하는데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출판물은 규격화된 칼럼그리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신문의 경우 6개 혹은 7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블로이드판인 경우 4개 혹은 5개 칼럼, 대부분의 잡지의 경우는 3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책의 경우는 1개 혹은 2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지역 신문은 세로 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인 7단 체제를 따르고 있다. 가로는 기사의 크기에 따라 그 면적을 나누는 구분선은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약간씩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지면 하단에 위치한 5단 광고를 제외한 가로 행은 1면의 경우는 63-65행, 사회면은 67-69행을 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그리드는 세로는 7단을 기준으로, 가로는 70행을 기준으로 두었다. 따라서 그 구획 구분에 있어 세로는 규격화된 7단, 가로는 70행에 따라 지면 분석을 위한 실제 지면의 1/2 크기의 분석 틀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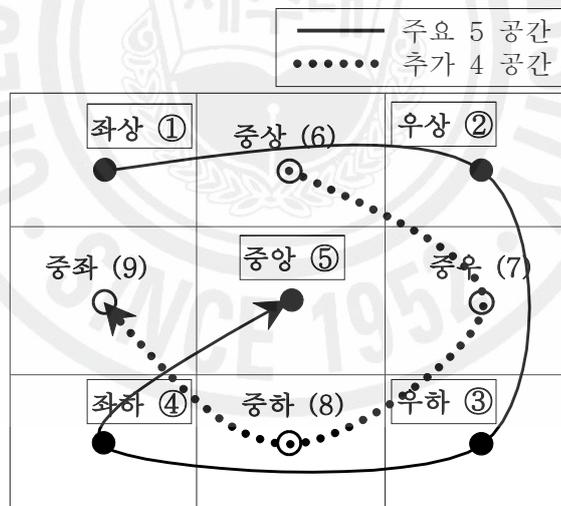
각 신문 및 지면마다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 총 6개 지면을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신문 지면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문지면 모두를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에 앞서 만든 분석틀을 겹치게 하여 각각의 기사들과 독서중력선, 가로선간의 거리를 통해 해당 기사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기사의 크기는 기사 형태의 불규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간혹 달라지기는 하나 대부분의 신문이 세로 7단 체제를 따르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가로 행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두 개의 기사가 한 칸에 동시에 걸쳐질 경우에는 두 기사 가운데 보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를 해당 칸에 위치시켰다.

11) 현재 한국 신문은 대개 1면이 면적 개념으로 15~17단이며, 1단은 3cm 이다. 따라서 ‘1단 1cm’는 세로 3cm에 가로 1cm의 크기이다. 단, 이는 광고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수학적 기준에 불과하며, 기사의 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에드먼드 아놀드(Edmund Arnold)가 가장 읽기에 이상적이라 하여 제시한 1단을 5.3cm로 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2) 신문지면 기사의 배치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보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면의 해당기사들을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다. 이는 해당 기사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면의 기사배치와 같은 외형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기사가 배치되는 지면의 '주요 5 공간'을 분류하였으며, 여기에서 잡히지 않는 기사는 '추가 4 공간'을 두어 총 9개 공간을 통해 기사를 분류하였다. 먼저 주요 5 공간은 신문 지면의 좌측상단 기사(좌상), 우측상단 기사(우상), 우측하단 기사(우하), 좌측하단 기사(좌하), 중앙 기사(중앙)이고, 추가 4 공간은 중앙상단 기사(중상), 중앙우측 기사(중우), 중앙하단 기사(중하), 중앙좌측 기사(중좌)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신문지면 기사 구분



해당 기사의 취사선택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면에서 1단 6행 이상의 크기를 보이는 기사만 인정하였다. 1면의 경우, 주요기사의 배치 이후 자투리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작은 기사들을 위치시키다 보니 위치상 일관성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면을 비롯한 내지면의 경우, 더 심했는데 이는 한정된 지면에 많은 기사를 배치한 결과로 보였다.

또한 지면 분할 이후 실제 기사들을 위치 시 해당 기사는 단과 행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박스 기사의 경우 박스를 기본으로 하되, 기사의 내용과 기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기사로 처리하였다.¹²⁾ 한편 1면에서의 ‘사고’와 ‘알림’은 물론 매일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위치도 대체적으로 지면의 우상 내지 우하지점으로 동일하지만 그 크기와 위치가 신문지면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분석에 포함시켰다. 반면 토막광고는 지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크지도 않고, 그 위치가 대개 유사하여 다른 기사들의 지면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다루지 않았다.

3) 신문지면의 독서중력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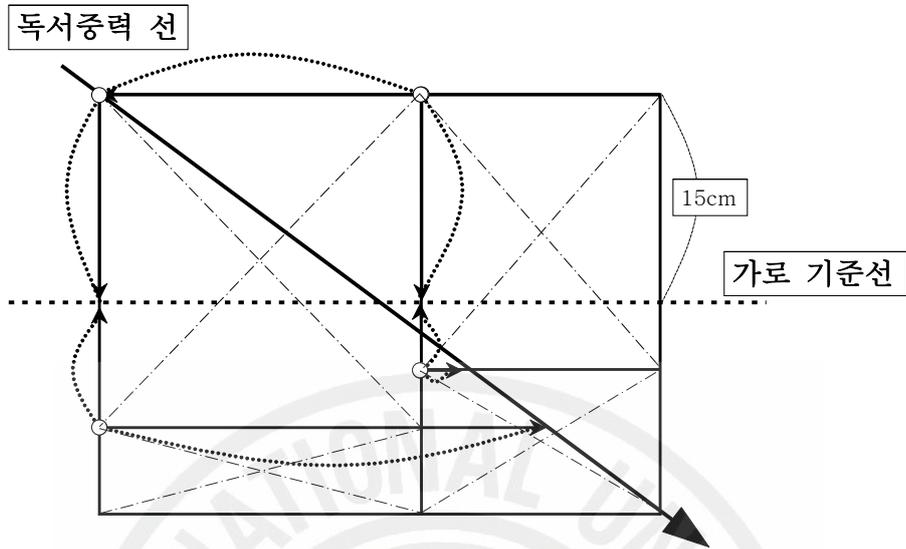
앞서 지면의 분할과 기사배치 이후에 각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분석표 위에 좌상지점에서 우하지점에 이르는 독서중력선을 긋고 추출된 지면을 기사배치 표 위에 두어 주어진 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기사들을 구분하였다. 이후 해당 기사들의 좌측 위 꼭짓점이 독서중력선 및 가로 기준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정도, 즉 그 산포도를 통해 각 기사들의 지면위치를 파악하였다.¹³⁾ 또한 가로선과 세로선을 각각 알아보고 이를 통해 넓이를 파악하여¹⁴⁾ 지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당 기사들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그림 3-3>).

12) 기사가 아닌 여타의 컨텐츠는 어느 곳에 더 많은 비율로 걸쳐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하였으며, 기사 배치는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기사의 헤드라인이 기사배치표의 어느 지점에 보다 많이 걸쳐지고 있는가에 따라 기사를 구분하였으며, 사진기사의 경우는 소제목 외에는 헤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전체 사진의 면적을 통해 구분하였다.

13) 가로선의 경우는 실제 독서중력 흐름을 알아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결과 도출 과정에서 각 기사와 독서중력 선과의 평균길이만 존재한다면 그 정확한 위치 즉 높고 낮음에 대한 위치는 파악 할 수 없음에 지면의 윗면에서 15cm지점에 가로 선을 그어 해당 기사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14) 표준 해당 기사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경우 사각형으로 제시된 기사의 경우는 그대로 치수를 재어 넓이를 파악한 반면, 다른 형태로 기사가 제시된 경우는 세로선과 가로선은 가장 긴 면을 재었고, 넓이는 실제 넓이를 파악하였다. 이는 실제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후 결과도출 과정에서는 앞서 에서 나타난 독서중력 선과의 거리를 중심에 두고 가로, 세로 선을 긋고 실제 넓이를 통해 모양을 추정하였다.

<그림 3-3> 신문지면에 기사가 4개일 때 지면 분석 예시



이를 기반으로 <연구문제 1>에서의 공간적인 접근인 발전기금 사업 전과 후 각각에서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와 <연구문제 2>에서의 시간적인 접근인 사업 전후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분석에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각 기사에서 독서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와 기사의 가로 및 세로 길이 그리고 넓이를 알아봄에 있어 신문별은 T-분석 (T-test)을 신문간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여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코더 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코더 간 신뢰도를 알아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반 신뢰도 계수를 구하는 방식 보다는 그 정확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종합적 신뢰도 계수(compositive reliability coefficient)를 통해 상호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코더가 일일이 길이를 재어 나타내야 하는 분석 유목이 많은 관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해당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지면 중 일부를 가지고

신문 내용분석 경험이 있는 학부 졸업생과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본 연구자 세 명을 통해 산출하였다.

<표 3-3> 코더 간 종합적 신뢰도 계수 및 유의도 수준

구 분	기사위치	구 분	중력선 까지	가로선 까지	가로길이	세로길이
신뢰도 계수	0.92	유의도 수준(p)	.915	.923	.926	.908

그 결과 지면에서 기사를 구분하는 기사위치에 대해서 0.92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더 각각이 기사와의 중력선과의 거리 및 가로선과의 거리 그리고 기사의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세 명 중 가장 차이가 나고 있는 두 명의 정도(수치)를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평균 차는 1cm 전후였고 모두 유의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1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으며, 코더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코딩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사항

1. 분석지면 기초통계분석

<표 4-1> 분석 신문의 1면/사회면 신문 구분, 기사위치, 기사 제시방법 빈도표

	구분	1면		사회면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신문 구분	제민일보 이전	203	16.1	248	16.1
	제주일보 이전	217	17.2	235	15.2
	한라일보 이전	222	17.6	288	18.7
	제민일보 이후	190	15.1	251	16.3
	제주일보 이후	215	17.1	262	17.0
	한라일보 이후	213	16.9	260	16.8
기사 위치	좌상지점	278	22.1	291	18.8
	우상지점	297	23.6	281	18.2
	우하지점	207	16.4	213	13.8
	좌하지점	161	12.8	195	12.6
	중앙지점	75	6.0	89	5.8
	중상지점	33	2.6	26	1.7
	중우지점	45	3.6	178	11.5
	중하지점	134	10.6	147	9.5
	중좌지점	30	2.4	124	8.0
기사 제시방법	기사	766	60.8	1099	71.2
	사진기사	180	14.3	137	8.9
	기사+이미지	233	18.5	308	19.9
	사고/알림	81	6.4	-	-
합계		1260	100.0	1544	100.0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기사 수는 1면 1,260건, 사회면 1,544건으로 총 2,804건이며, 모든 신문에서 1면 보다는 사회면에 보다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1면의 경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서는 한라일보가 222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 제민일보가 203건으로 가장 적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서는 제주일보가 215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고, 가장 적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신문은 이전보다 더 적어진 190건으로 제민일보였다. 다음으로 각각 기사들의 지면배치를 알아보는 기사위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상지점이 29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좌상지점 278건, 우하지점 2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들의 기사 제시방법을 알아 본 결과, 헤드와 본문만을 포함한 기사가 766건으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기사에 사진, 도표, 그림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 233건, 사진 기사 180건, 사고/알림은 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면에서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서는 한라일보가 288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지면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제주일보가 235건으로 가장 적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서는 제주일보가 262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지면에서 다루고 있고, 제민일보가 251건으로 가장 적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기사들의 지면배치를 알아보는 기사위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면과 달리 좌상지점이 291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우상지점 281건, 우하지점 2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들의 기사 제시방법을 알아 본 결과, 1면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나 그 빈도에 있어서는 헤드와 본문만을 포함한 기사가 10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사진, 도표, 그림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 308건, 사진기사 137건 등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알림은 보이지 않았다.

제 2 절 연구문제 분석 및 결과의 제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 검증은 1면과 사회면 각각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신문 간 비교를 진행하였고,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문별로 대분하여 3개 신문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대상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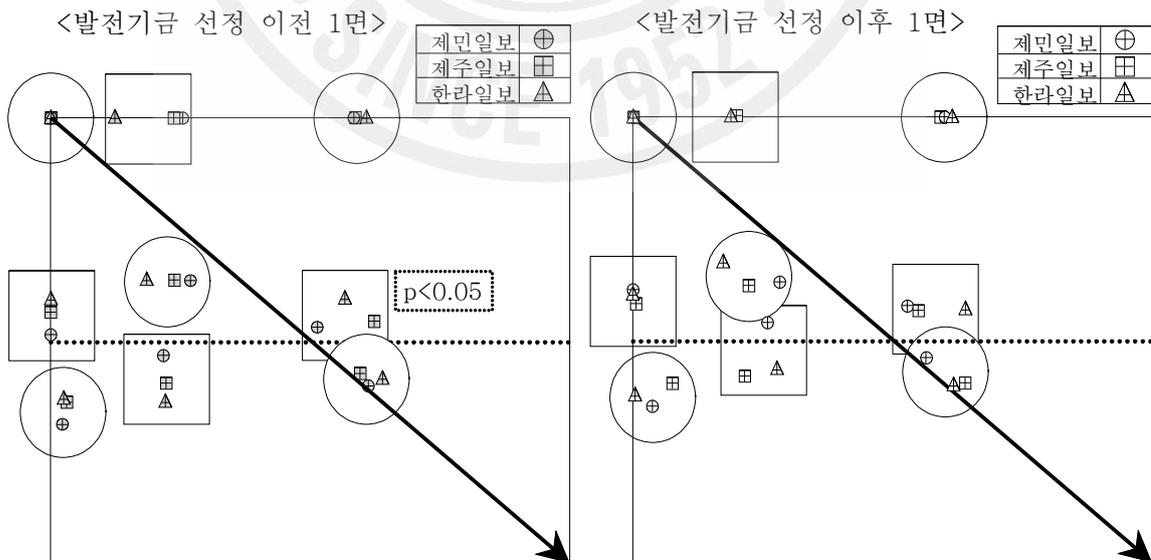
	구 분	연구대상 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연구문제 1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비교	○	○	○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비교	○	○	○
연구문제 2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비교 A	○	-	-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비교 B	-	○	-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비교 C	-	-	○

1.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 비교

1) 신문 간 1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그림 4-1>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선정이후 신문 간 1면 기사의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1면 기사들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면 편집 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는 3개 신문 모두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중력선을 기준으로 중앙지점의 기사 중 한라일보가 조금은 벗어나 있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좌하기사의 경우에서 제민일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에 비해 조금은 아래편에 형성되고 있으나 이 또한 눈에 떨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의 1면 주요 5지점(○)의 기사들은 신문 간 유사한 기사 배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1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중우지점이 신문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p < 0.05$), 제민일보가 독서중력선에 가장 근접하게 기사를 배치시키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라일보, 제주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우지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해당 기사 중 제민일보가 지면 중앙에 근접하도록 기사들을 배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상지점에서 한라일보가 중력선에 많이 근접해 있음을 통해 이 지점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왼편으로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부록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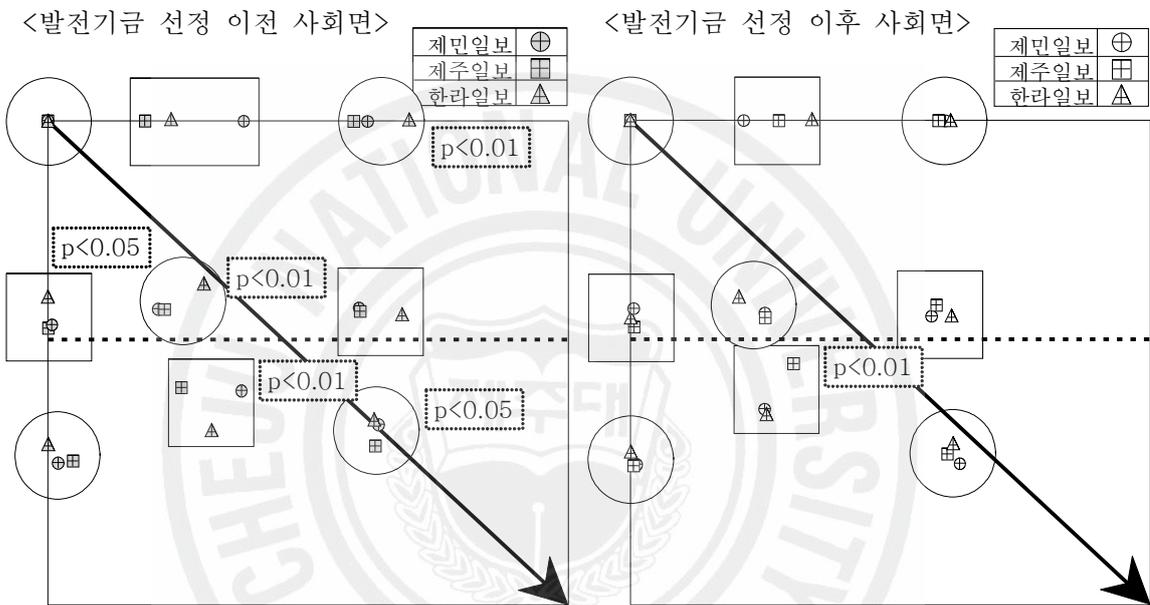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1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독서중력선에 근접해 있으며, 신문 간 중앙선까지의 거리차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크지 않았다. 아울러 독서중력선을 통하는 기사 중 우하기사는 거의 선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의 기사들은 제주일보가 조금 벗어나 있었으며, 한라일보 역시 다른 신문 보다는 조금은 높은 지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1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중상지점과 중좌지점은 거의 일치할 만큼 상호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해당 기사들이 이 지점에 제시될 당시 거의 규칙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우지점은 3개 신문 모두 중앙선에서 벗어난 정도가 비슷하나 중앙선과의 거리에 있어서는 한라일보가 좀 더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하지점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제민일보가 위편에 위치한 반면 나머지 신문은 그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독서중력선과의 거리에서는 제민일보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부록 표-3>).

2)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그림 4-2>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선정 이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의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면 편집 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우상지점($p<0.01$), 우하지점($p<0.05$), 그리고 중앙지점($p<0.01$)에서 신문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중앙선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지점($p<0.05$)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상지점의 경우 한라일보의 기사가 독서중력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반면 중앙지점은 독서중력선에 거의 근접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라일보의 경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서는 중앙기사에 대한 관심이 우상기사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상기사의 크기의 정도와 중앙기사의 빈도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사회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중하지점($p < 0.01$)과 중좌지점($p < 0.05$)에서 그리고 중앙선까지의 거리 역시 중하지점($p < 0.01$)과 중좌지점($p < 0.01$)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하지점에서는 제민일보가 독서중력선에 가장 근접해 있었고, 한라일보가 상대적으로 중앙선 아래편으로 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중력선과의 거리도 다른 신문에 비해 길었다. 또한 중우지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한라일보가 조금 더 벗어나 있다. 반면 중좌지점에서는 한라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중앙선 위편으로 기사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독서중력선과의 거리 역시 조금은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상지점의 경우 형태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한라일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기사를 이곳에 배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신문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제로는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부록 표-5>).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의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먼저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중앙지점에서 한라일보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중앙선 및 독서중력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여러 지점에서 다른 형태를 보였던 모습에 비하면 상호간 그 차이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 이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발전기금 사업이 도내 신문 사회면 편집에는 공통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사회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중하지점($p < 0.01$) 그리고 중앙선까지의 거리 역시 중하지점($p < 0.05$)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하지점에서는 제주일보가 중앙과 독서중력선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강해 보였으며, 나머지 2개 신문은 비슷한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중상지점의 경우 표본이 크지 않은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점에서는 지점별로 한 지점에 몰려 있는 경향을 살필 수 있었다(<부록 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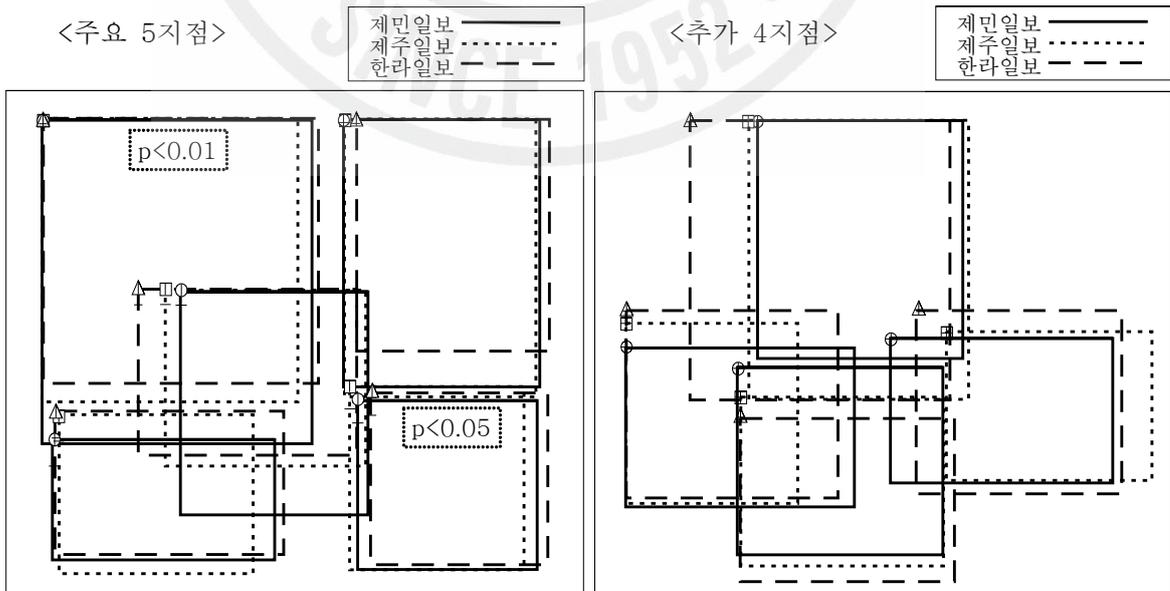
<표 4-3> 신문 간 기사위치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구 분	내 용
1면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 선정이전과 이후 모두 신문 간에는 1면 기사 배치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임. 이로 인해 독서중력 선과의 거리 차 역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사회면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전	- 1면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호간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신문 중 한라일보의 변화의 폭이 컸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지점 기사에 대한 관심만을 높게 보임으로 인해 나머지 기사들은 오히려 타 신문에 비해 독서중력선에서 멀어져 있음.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 선정이전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신문 간에 서로 다른 형태를 내비쳤던 모습이 상당 하리 만큼 유사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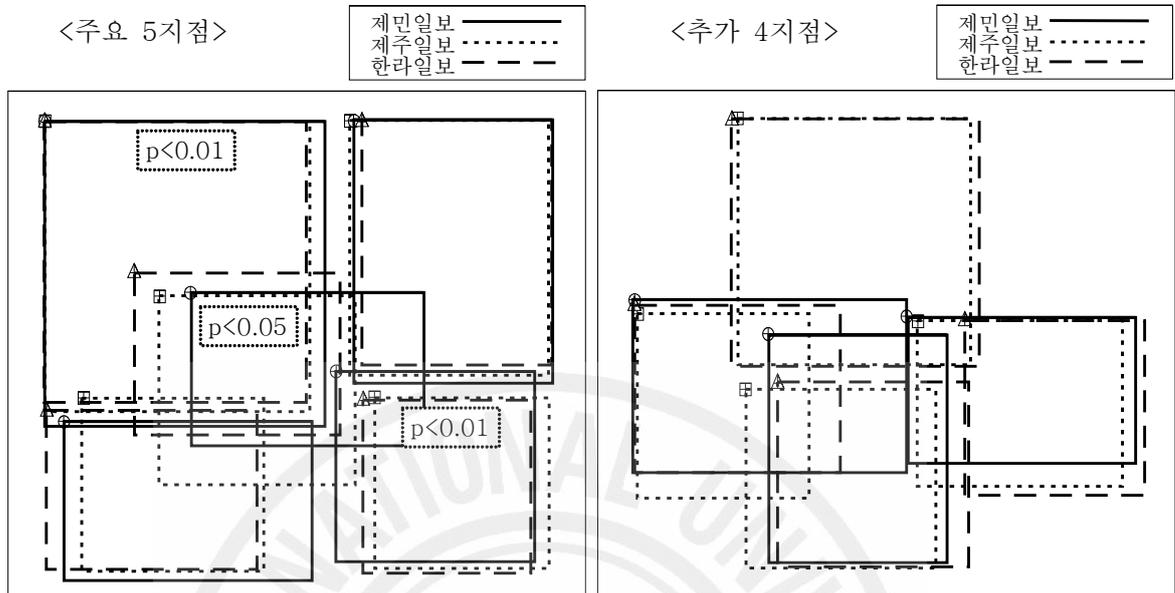
3) 신문 간 1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그림 4-3>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1면 기사의 크기



<그림 4-4>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1면 기사의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1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각 기사의 가로와 세로를 비교하였는데, 가로는 좌상지점(p<0.05)에서 한라일보, 중앙지점(p<0.05)에서도 한라일보가 가장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로는 좌상지점(p<0.01)에서 제민일보, 우상지점(p<0.05)에서 제주일보, 좌하지점(p<0.05)에서 제주일보, 중앙지점(p<0.01)에서는 제민일보가 가장 길게 잡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좌상지점(p<0.01)에서는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순으로 크게 잡고 있으며, 좌하지점(p<0.05)에서는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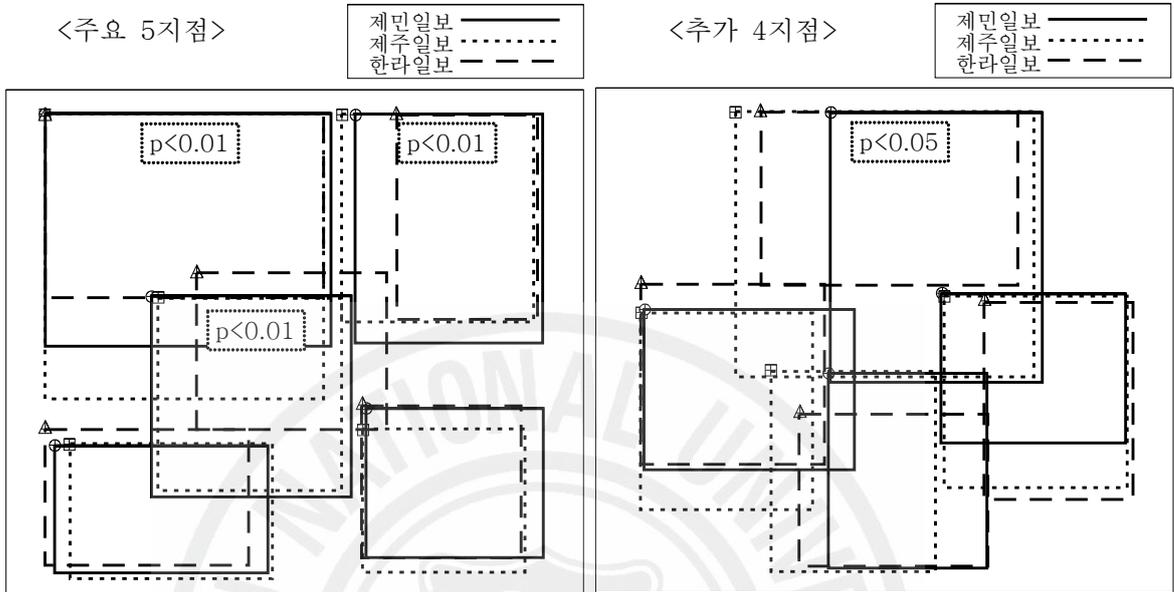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는 제민일보가 좌상지점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는 반면, 좌하지점에는 다른 신문에 비해 한라일보가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라일보가 기사의 세로에 비해 가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 5지점이 아닌 추가 4지점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심지어 넓이까지도 상호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신문이 이 지점들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2>).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1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에서는 우선 각 기사의 가로와 세로의 경우를 보았을 때 가로의 경우, 좌상지점($p<0.05$), 우하지점($p<0.01$), 좌하지점($p<0.01$) 모두 제민일보가 가장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로는 중앙지점($p<0.05$)에서는 제주일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서 가장 길게 길이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좌상지점($p<0.01$)에서는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순으로 크게 잡고 있었으며, 우하지점($p<0.01$)에서는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순이었다. 중앙지점($p<0.05$)에서는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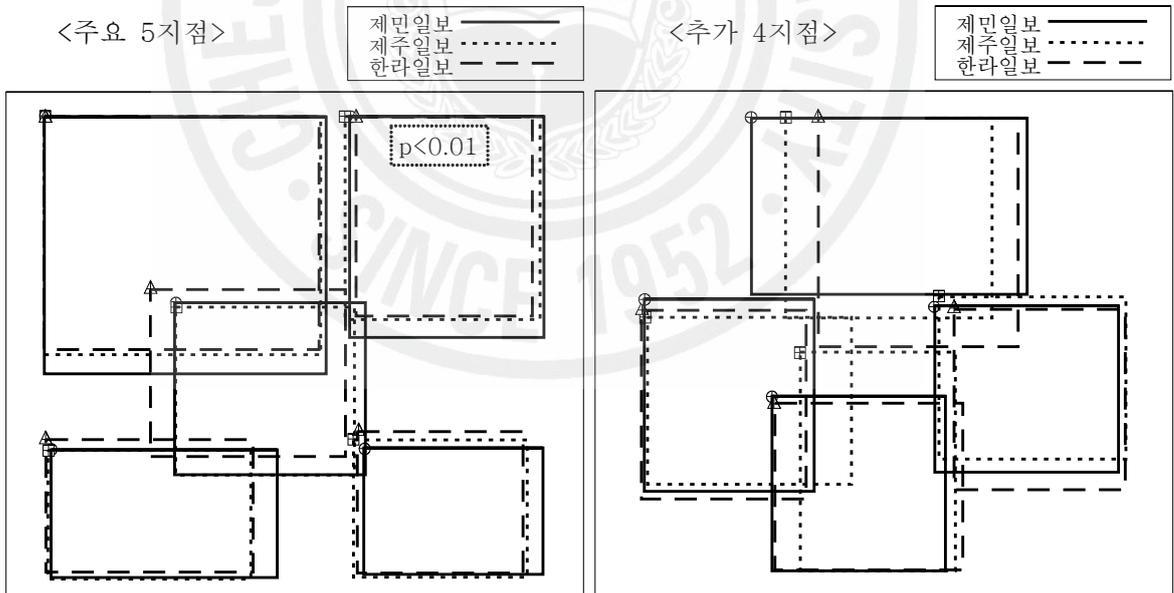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역시 제민일보가 좌상지점은 물론 우하지점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대부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로길이 또한 제민일보가 가장 길게 나타내고 있었다. 기초통계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제민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1면의 기사량이 적은 만큼 그 크기를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역시 주요 5지점을 제외한 추가 4지점에 대한 관심이 적게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4>).

4) 신문 간 사회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그림 4-5>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크기



<그림 4-6>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사회면 기사의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사회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각 기사의 가로와 세로를 보았을 때, 가로의 경우 우상지점($p<0.01$)과 중우지점

($p < 0.01$)에서 제주일보와 제민일보가 비슷한 수준에서 길게 두고 있으며, 중하지점($p < 0.01$)은 한라일보가 가로 길이를 가장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로의 경우, 좌상지점($p < 0.01$)에서는 제주일보, 중앙지점($p < 0.01$)에서는 제민일보, 중우지점($p < 0.01$)과 중하지점($p < 0.01$)에서는 제주일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서 가장 길게 길이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좌상지점($p < 0.01$) 제주일보, 우상지점($p < 0.01$) 제민일보, 중앙지점($p < 0.01$) 제민일보, 중상지점($p < 0.05$)에서는 제주일보가 보다 크게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서는 제주일보가 유독 기사의 가로, 세로길이는 물론 그 기사의 면적에 있어서도 크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6>).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사회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는 우상지점($p < 0.05$)에서 제주일보와 제민일보가 비슷한 수준에서 길게 두고 있으며, 중하지점($p < 0.05$)의 경우는 한라일보, 중좌지점($p < 0.05$)은 제주일보가 가장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로는 중하지점($p < 0.05$)에서 제주일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서 가장 길게 길이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우상지점($p < 0.01$)에서 제민일보가 보다 크게 기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비교하면, 제주일보의 경우는 다소 크게 기사를 제시하던 양상이 줄어들었으며, 제민일보의 경우는 우상지점에 대한 기사크기에 집중하는 양상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많은 부분 신문 간에 동일화 수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8>).

<표 4-4> 신문 간 기사크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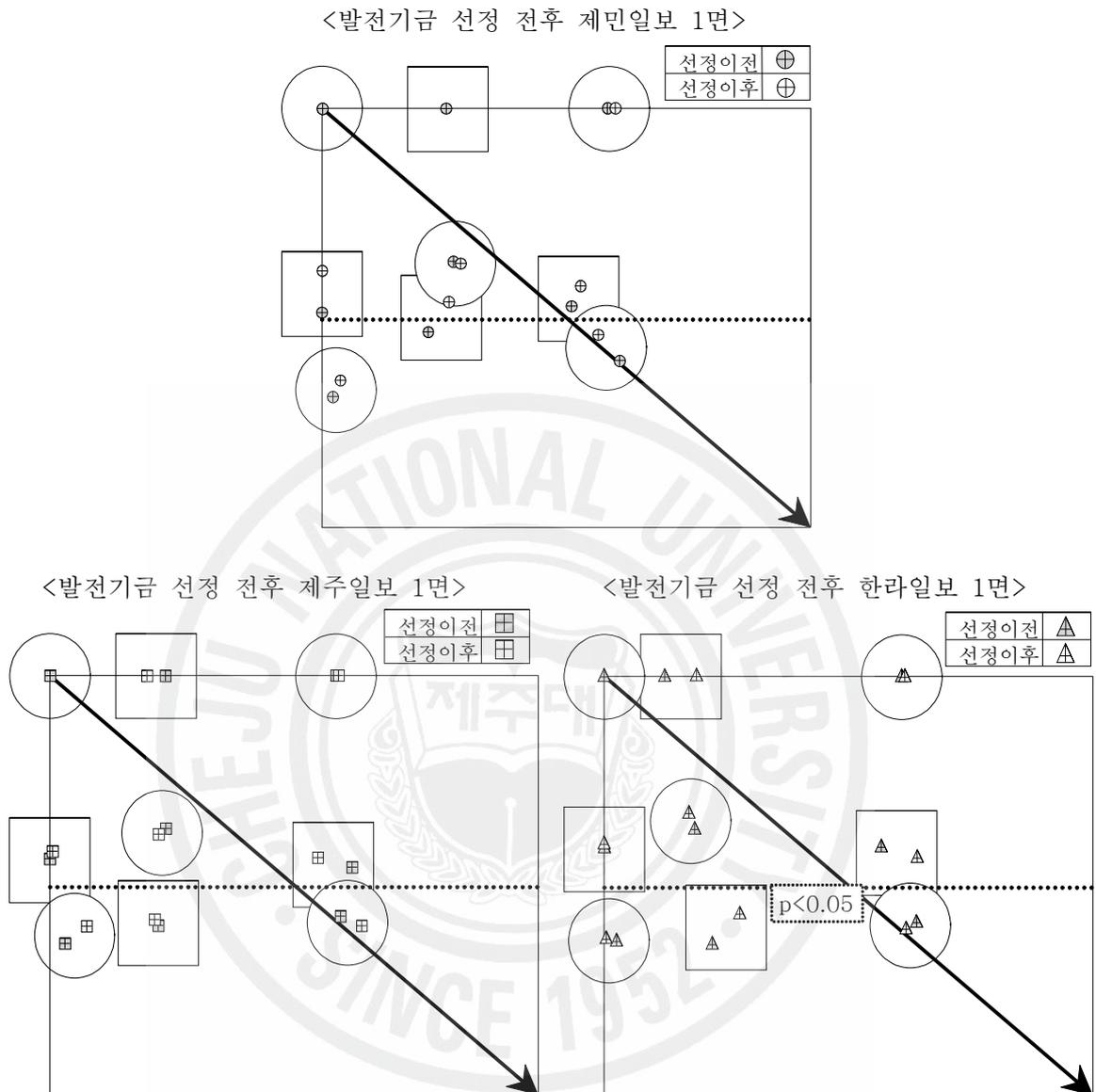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1면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전	- 제민일보가 타 신문에 비해 좌상지점에 대한 비중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는 반면, 좌하지점은 한라일보였으며, 더불어 한라일보는 주요지점에서 기사의 세로길이 보다는 가로길이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 제민일보가 선정이전과 마찬가지로 좌상지점에 대한 비중도를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음과 동시에 우하지점 역시도 크게 나타내고 있음. 기초통계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제민일보는 타 신문 보다 1면의 기사수가 적은만큼 그 크기를 크게 나타내고 있음.
사회면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전	-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나타낸 결과는 제주일보에 의해서였는데 이를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는 제주일보가 타 신문에 비해 유독 기사의 가로, 세로길이는 물론 그 기사의 면적에 있어서도 이를 크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후	- 선정이전의 제주일보의 부각되어짐은 없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세 신문의 기사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 비교

1) 신문별 1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그림 4-7>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 1면 기사의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1면의 독서중력 위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제민일보 주요 5지점(○)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우하지점에서 전후 신문 간에 중앙선과의 차이는 있으나 독서중력선과는 그 거리차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독서중력선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있지 않으나 이 지점의 기사크기와 연관시켜 이전에 비해 이후가 좀 더 크게 기사가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 역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하지만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중앙지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부분과 대체적으로 이후가 이전에 비해 각 지점들이 독서중력선에 근접해 있다는 점,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모든 지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지점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궁극적으로 편집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9>).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상호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없었다. 좌하지점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독서중력선과 중앙선에 조금은 더 근접해 있다는 점 이외에 독서중력선에 걸치는 지점들을 비롯한 모든 상호지점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 역시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상호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없었다. 하지만 각각의 지점 상호간에 중앙선과의 거리는 비슷한 반면,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독서중력선에 보다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변화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부록 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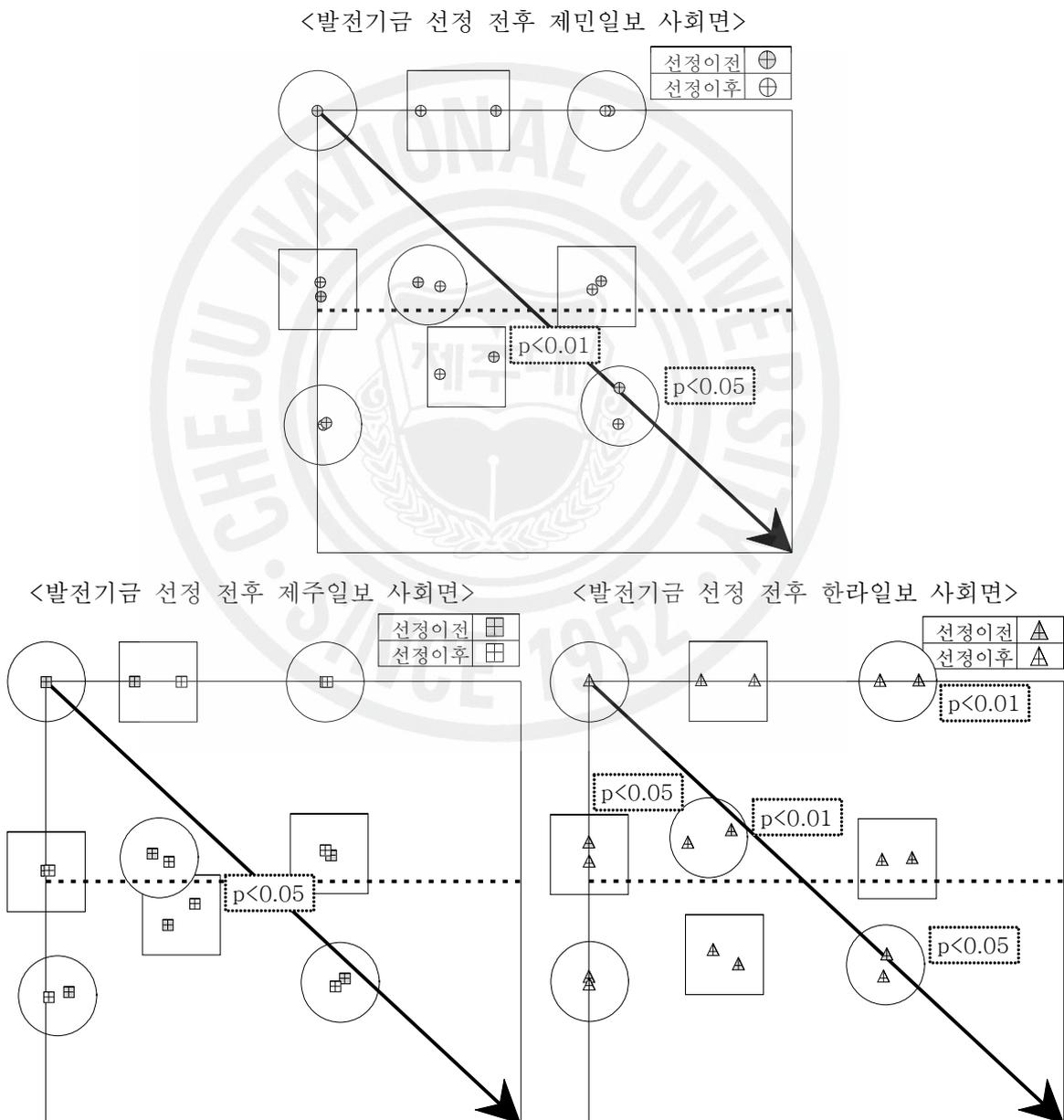
1면 각 지점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앞서와 같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유사한 지점에 서로 모여 있었다. 중앙지점에서 상호간 그 지점이 조금 벌어져 나타나고 있을 뿐, 모든 지점이 상당히 근접해 있어 전후 기사배치의 유사성이 보였다. 특히 우하지점의 유사성은 앞선 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었으며, 이 지점의 기사 배치 시 같은 형태의 기사가 배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 한라일보 우하지점에는 비슷한 크기의 유사한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중하지점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p < 0.05$), 나머지 지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중하지점에서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중앙선에 근접해 있음은 물론 독서중력선과의 거리 역시도 더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가 이전에 비해 더 독서중력선에서 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표-13>).

2) 신문별 사회면 기사들의 위치 변화 분석

<그림 4-8>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 사회면 기사의 위치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물론 중앙선까지의 거리 역시도 우하지점($p<0.01$)에서 유의미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하지점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보다는 선정이후에 이 지점이 독서중력선과 중앙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중우지점의 위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상지점에 의해 연쇄반응으로 우하지점이 위축되어졌다기보다는 중우지점의 부각으로 인해 이 지점의 위치가 아래로 밀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가 중하지점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앞서와 유사하게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이 선정이후에 비해 더 독서중력선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주변의 지점 즉 중앙기사 혹은 좌상기사 등에 의해 이 지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점의 기사만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 지면 원편 아래편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15>).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점의 변화추이가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일보 사회면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가 중하지점($p<0.05$)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선정이후가 독서중력선과 중앙선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민일보의 경우와는 달리 제주일보는 상대적으로 중하지점 주변의 입지가 탄탄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또한 주요 5지점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전후간에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17>).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의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우상지점($p < 0.01$), 우하지점($p < 0.05$), 그리고 중앙지점($p < 0.01$)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선까지의 거리는 우하지점($p < 0.05$)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상지점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선정이후가 더 독서중력선에 근접해 있었으며, 반면 중앙지점과 우하지점은 오히려 이전이 이후보다 더 중앙선과 독서중력선에 근접해 있었다. 이는 우상지점의 기사크기와 중우지점의 기사크기를 알아본 결과,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비슷한 크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위편 기사에 대한 연쇄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우하지점에 같은 종류 내지 크기가 비슷한 기사가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우지점이 지면 원편으로 이동한 것은 확실하여 이는 중앙지점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최종적으로 중앙기사가 독서중력선에서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의 독서중력선까지의 거리는 중좌지점($p < 0.05$)에서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위치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 비해 이전이 조금은 높은 지점에서 형성되어지고 있었다. 이는 좌상기사에 영향을 받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의 이 지점의 기사가 밑으로 내려가고, 중하기사가 오히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 올라간 것으로 보아 폭을 좁게 하여 길게 밑으로 뻗쳐 내려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머지 지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부록 표-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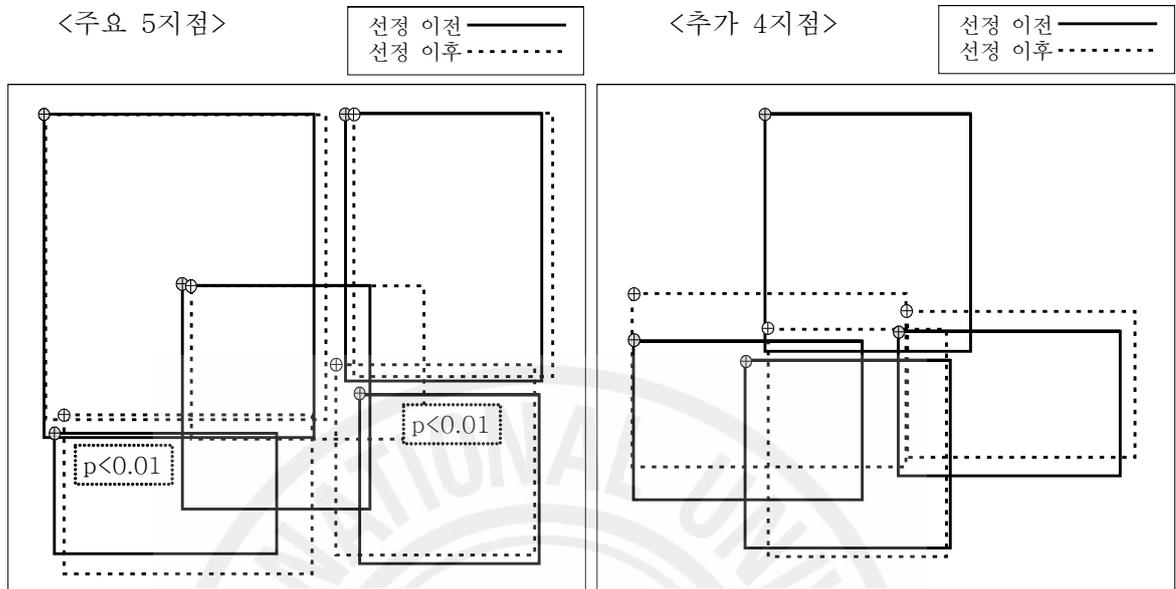
<표 4-5> 신문별 기사위치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구 분	내 용
1면 위치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민일보	- 전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주일보	- 제주일보 역시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없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한라일보	- 타 신문과 달리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점은 중우지점뿐이었으나 여러 지점에서 거의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주요 5지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
사회면 위치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민일보	- 지면의 아래 지점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독서중력선에서 더 멀어져 있음. 이를 통해 발전기금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상대적으로 지면 위편 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아래편 기사가 위축되어졌음을 알 수 있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주일보	- 앞서의 1면에서도 그러했듯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중하지점에서의 변화가 포착되어지고는 있으나 주변 지점들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점의 기사만이 독서중력선으로 좀 더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한라일보	- 1면과 더불어 사회면 역시도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상당 수 지점들이 독서중력선에서 멀어져 있음. -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각 지점들이 지면의 왼편으로 이동되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이는 지면 우측편 기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이 지점들에 한해서는 각 지점들이 독서중력선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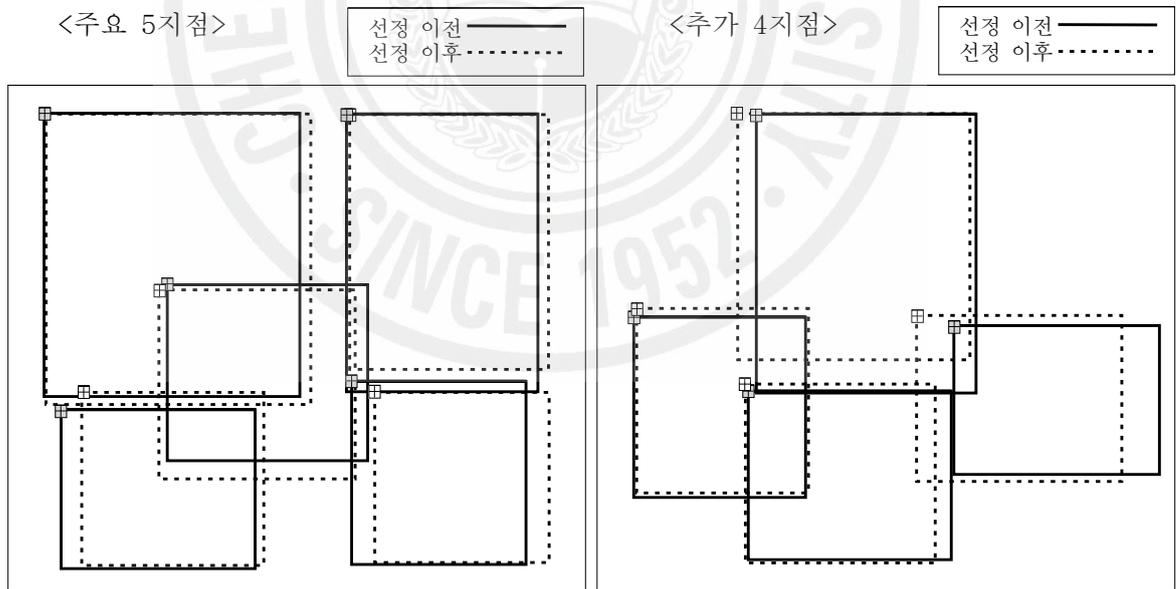
3) 신문별 1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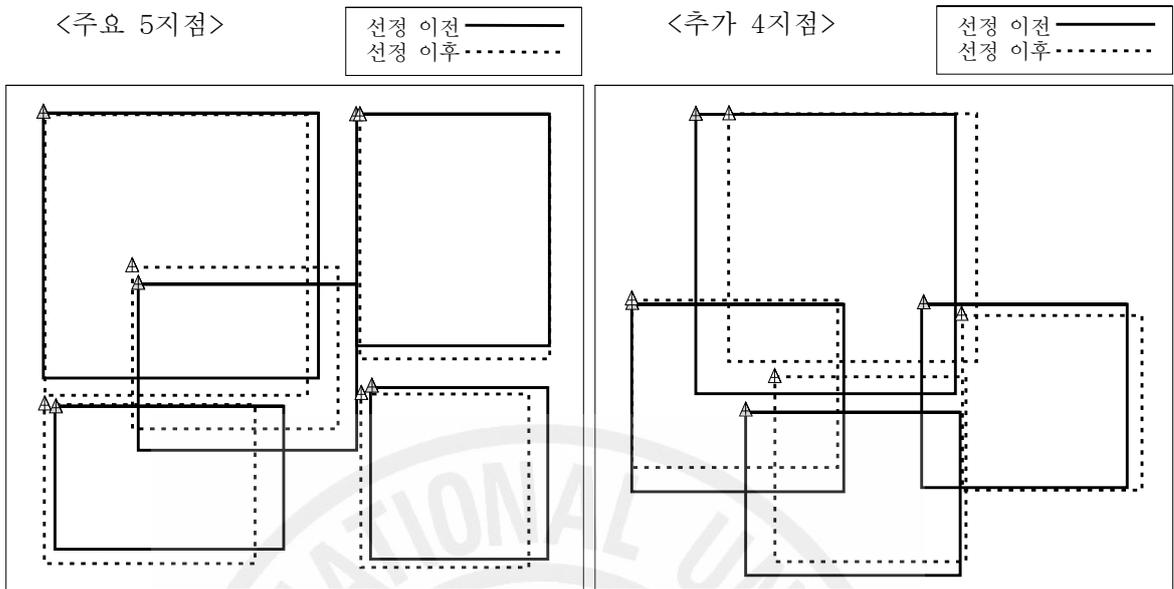
<그림 4-9>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그림 4-10>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그림 4-11>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기사의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는 우하지점($p < 0.05$)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로는 좌하지점($p < 0.05$)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우하지점($p < 0.01$)과 좌하지점($p < 0.01$)에서 모두 선정이후가 기사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제민일보는 아래편 즉 우하지점과 좌하지점의 기사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는 특히 우하지점의 경우는 가로의 길이, 좌하의 지점은 세로의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는 보였던 중상지점에 대한 기사배치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좌상지점과 우상지점 기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좌상지점 기사의 크기가 더 커짐으로 인해 해당기사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되었다(<부록 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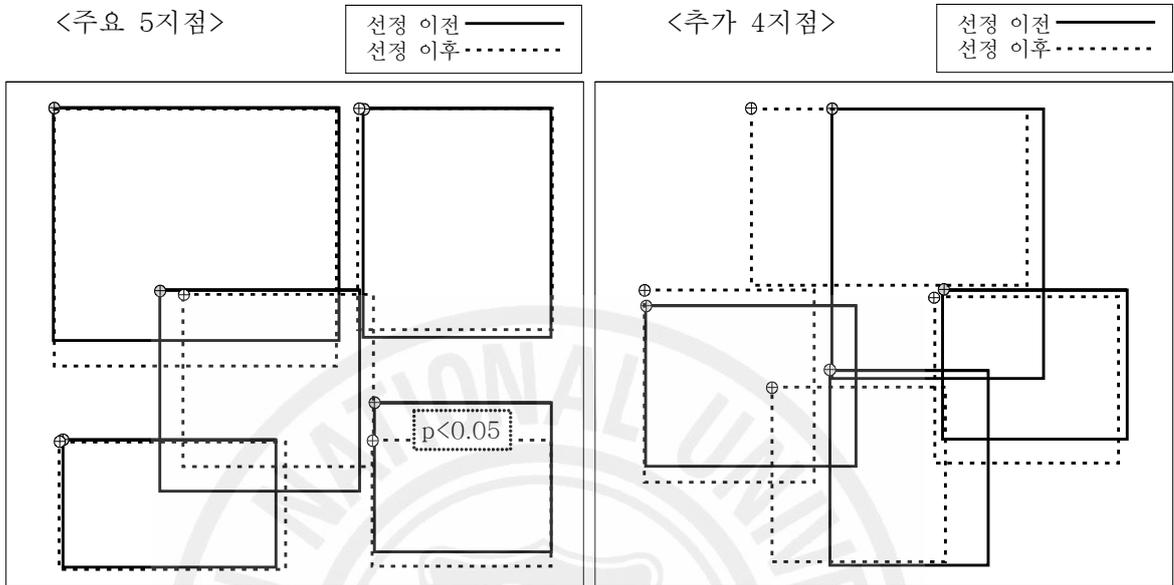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각 기사의 가로와 세로 이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

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살펴본 상호간의 넓이 역시 각 지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세로길어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유사하였지만 가로 길이의 경우 이러한 유사성은 더욱더 분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우하지점과 중앙지점, 중상지점, 중우지점 그리고 중좌지점 등 많은 지점들이 서로 같거나 상당히 유사하였다. 지면에서 가로 길이가 신문의 칼럼에 영향을 받음으로 거의 매일 7단 체재를 통해 지면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내 신문을 보았을 때, 제주일보는 발전기금 사업 전후 관계없이 지점별로 비슷한 칼럼 길이를 통해 기사를 배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부록 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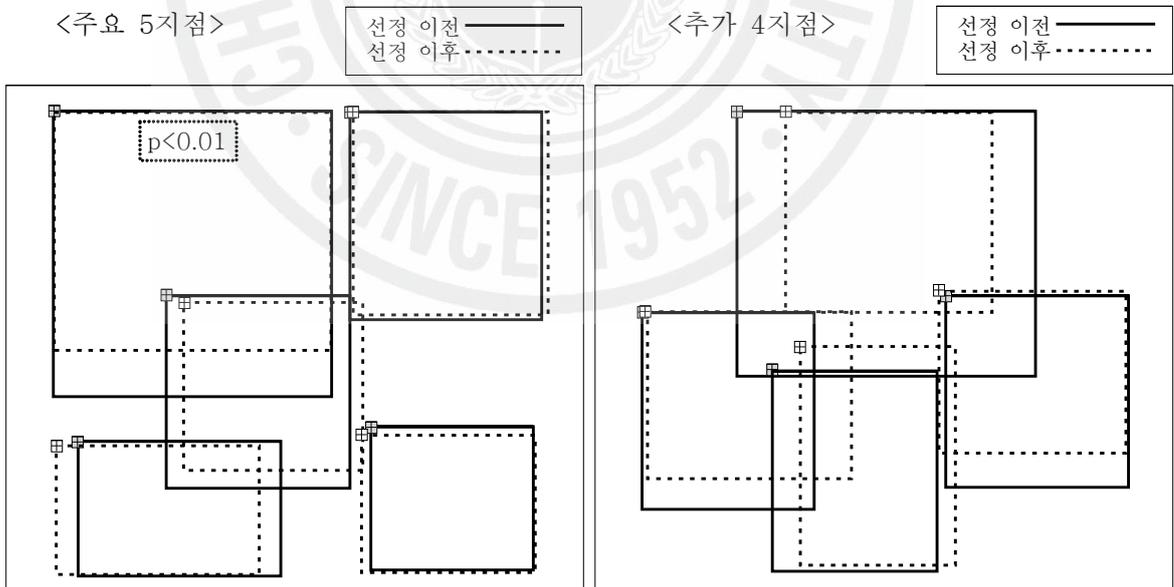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에서는 중우지점($p < 0.01$)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로 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작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세로의 길이는 각 지점별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상호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그 크기 역시 이전과 이후 중앙지점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전체적으로 주요 5지점은 그 크기가 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커져 있으나, 추가 4지점은 모두 작아져 있었다. 이를 통해 앞서의 몇몇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추가 4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 5지점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부록 표-14>).

4) 신문별 사회면 기사들의 크기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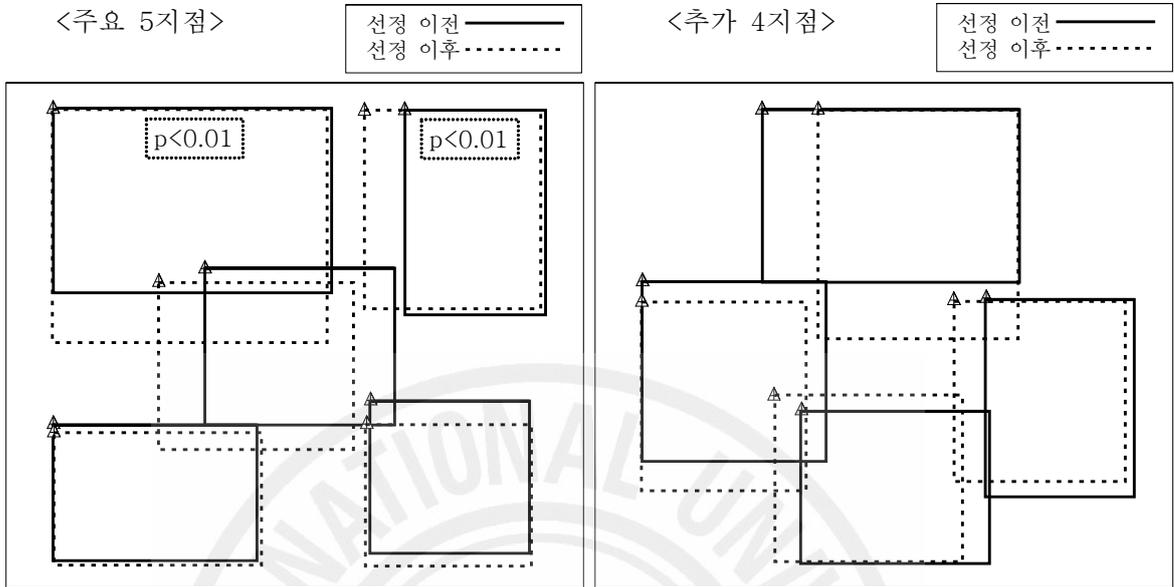
<그림 4-12>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기사의 크기



<그림 4-13>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기사의 크기



<그림 4-14>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기사 크기의 크기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는 중좌지점($p < 0.05$)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로는 우하지점($p < 0.05$)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짧게 그리고 중좌지점($p < 0.05$)은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우상지점($p < 0.05$)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가 이전에 비해 더 작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 간에 뚜렷한 변화추이는 살필 수 없었고, 상당부분 이전과 이후의 기사크기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16>).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사회면 제주일보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세로는 좌상지점($p < 0.01$)과 중우지점($p < 0.01$)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선정이후 세로길이가 더 짧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좌상지점($p < 0.01$)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보다 크게 기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

좌상기사가 더 커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 표-18>).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신문 간 각 지점의 기사크기를 살펴보면, 가로는 우상지점($p<0.01$)과 중우지점($p<0.05$)에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로는 좌상지점($p<0.01$)과 중상지점($p<0.05$)에서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각 지점의 넓이를 상호비교하면 좌상지점($p<0.01$)과 우상지점($p<0.05$)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가 이전에 비해 더 커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선정이후가 상대적으로 지면 위편에 신경을 더 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부록 표-20>).

<표 4-6> 신문별 기사크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

	구 분	내 용
1 면 크 기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민일보	-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좌상기사의 크기는 여전히 크며, 동시에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의 아래편 기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주일보	- 여기서 역시 타 신문에 비해 기사의 가로, 세로길이는 물론 넓이에서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모든 부분이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기사의 가로길이에서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사 배치 시 각 지점별로 비슷한 칼럼길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한라일보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사크기를 보이는 지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주요 5지점의 경우 기사의 크기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커져 있는 반면 추가 4지점은 오히려 작아져 있다는 것임.
사 회 면 크 기	발전기금 사업 전후 제민일보	-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우상지점의 기사크기가 조금 작아져 있을 뿐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 발전기금 선정 사업 전후 간에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좌상지점의 기사크기가 조금 커져있을 뿐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로 기사크기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발전기금 사업 전후 한라일보	-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좌상지점과 우상지점이 이전에 비해 좀 더 커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한라일보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 상대적으로 지면 위편 기사를 크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 3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일간지 1면과 사회면에 독서중력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면과 사회면에서의 각각의 기사 배치를 알아 본 결과 모두 좌측상단과 우측상단에 가장 많은 기사를 싣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의 제시방법 역시 1면과 사회면 모두 헤드와 본문만 있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사에 사진, 도표, 그림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 형태가 뒤를 이었다.

- 연구문제 1.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 신문 간 독서중력 형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서의 신문 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1> 가설 1의 검증결과, 1면을 살펴보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의 신문 간 비교에서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의 1면 주요 5지점의 기사들은 상호신문 간 유사한 기사 배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가 4지점에 대한 기사위치 형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기사 중 제민일보가 가장 지면중앙에 근접하도록 기사들을 배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일보, 한라일보 순이었다. 반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신문 간 비교에서는 주요 5지점은 물론 추가 4지점 역시도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신문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 모두 신문 간에는 1면 기사 배치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독서중력 선과의 거리 차 역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거의 모든 지점들이 지면 위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아래편 기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면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은 1면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호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우상지점을 비롯하여 우하지점, 중앙지점, 중하지점, 중좌지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3개 신문 가운데 한라일보가 그 변화의 중심이었다. 한라일보의 경우, 좌상기사가 아래편이 아닌 오른편으로 길게 나타나는 관계로 우상지점이 독서중력선에서 멀어져 있었다. 또한 중앙지점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으로 이 지점이 독서중력선으로 향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지면에서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우지점과 중하지점은 독서중력선에서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는 이전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발전기금 사업이 도내 신문 사회면 편집의 동일화 현상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1> 가설 2의 검증결과, 1면을 살펴보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신문 간 비교에서는 제민일보가 좌상지점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었다. 좌하지점에는 타 신문에 비해 한라일보가 신경을 더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또한 주요지점에서 기사의 세로길이 보다는 가로길이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1면에서는 제민일보가 선정이전과 마찬가지로 좌상지점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타 신문에 비해 높게 잡고 있음과 우하지점 역시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로길이 또한 제민일보가 가장 길게 나타났는데, 기초통계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제민일보는 타 신문 보다 1면의 기사수가 적은만큼 기사의 크기는 크게 처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사회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나타낸 결과 대부분이 제주일보였다. 제주일보의 경우 기사의 가로, 세로길이는 물론 기사의 면적에 있어서도 타 신문에 비해 크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사회면에서는 앞서의 제주일보의 부각은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으로 세 신문의 기사크기가 동일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연구문제 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독서중력 형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 H1-1 독서중력 선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 H1-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기사들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 가설 1의 검증결과, 1면을 살펴보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제민일보는 전체적으로 전후 간 차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은 없었다. 하지만 중상지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부분과 지면의 아래편에 위치한 모든 지점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지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일보 역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를 비교할 때,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타 신문에 비해 더 강했으며, 이로 인해 발전기금 사업이 제주일보 1면 기사 배치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라일보는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점은 중우지점뿐이었으나 여러 지점에서 거의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요 5지점은 발전기금 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 4지점은 대체로 선정이후가 독서중력선에서 더 멀어져 있었다. 이는 주요 5지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과 더불어 때에 따라서 추가 되어지는 4지점이 주요 5지점 이후에 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사회면 제민일보는 우하지점과 중하지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지점은 모두 지면의 아래 지점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독서중력선에서 더 멀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제민일보 사회면은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 상대적으로 지면 위편 기사에 대한 높은 관심에 의해 아래편 기사가 위축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일보의 경우, 앞서의 1면에서도 그랬듯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하지점에서의 변화가 포착되어지고는 있으

나 주변 지점들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점의 기사만 독서중력선으로 좀 더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라일보는 1면과 더불어 사회면 역시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상당 수 지점들이 독서중력선에서 떨어져 있음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각 지점들이 지면의 좌측으로 이동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면 우측 기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이 지점들에 한해서는 각 지점들이 독서중력선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 가설 2의 검증결과, 1면을 살펴보면 제민일보의 경우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좌상기사의 크기는 여전히 비슷한 수치로 크며, 동시에 이전에 비해 이후에서 아래편 기사크기가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중상지점에 대한 기사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좌상기사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의해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해당 지점의 기사들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제주일보는 기사의 가로, 세로길이는 물론 넓이에서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사의 가로길이에서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사 배치시 각 지점별로 비슷한 칼럼길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라일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사크기를 보이는 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주요 5지점의 경우 기사의 크기가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에 비해 이후가 더 커져 있는 반면 추가 4지점은 오히려 작아졌다. 앞서 기사의 위치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라일보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서 주요 5지점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쏟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한편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신문별 사회면 기사크기에서는 제민일보는 우상지점의 기사크기가 조금 작아졌고, 제주일보는 좌상지점의 기사크기가 조금 커져있을 뿐 두 신문 모두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눈에 띄는 기사크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한라일보의 경우 비슷하기는 하나 좌상지점과 우상지점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에서 이전에 비해 좀 더 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라일보는 선정이후 지면 위편 기사편집에 신경을 더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주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지면 내 각각의 기사 간 위치 및 기사 크기 등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기금 사업이라는 외부자극이 실제 지역신문 디자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서중력 형태가 지면에서 어떠한 방향 및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 신문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신문 외형분석을 알아보는 연구 대부분이 신문 간 단순비교에 그치고 있어 신문 외형 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기존 발전기금 선정 전후 지면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신문내용의 변화와 더불어 외형적으로는 기사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밝혀냈다(차재영 외, 2006). 이는 본 연구에서 기사의 크기가 주변 기사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 독서중력 흐름에도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의 전제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제 3의 변인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시간적 변화 역시 외부자극에 의해 구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편집자에 대한 교육, 편집시스템의 변화, 근무환경의 개선, 인력 보충 등이 외부자극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들은 발전기금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신문 지면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설정되어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라는 변인에 대한 신뢰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제 인식 및 흐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과 선정되지 않은 신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이전과 이후 신문 간 그리고 신문별 변화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는 독서중력 형태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해당 지면에서 각각의 기사들이 독서중력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산포도를 종합하여 지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사들의 크기 즉, 지면에서의 면적을 통해 하나의 기사가 주변의 다른 기사의 위치 또는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독서중력선과의 거리 등을 변화하게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면의 기사위치와 크기는 세 신문 간 또는 신문별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아냈고, 기사크기에 의해 주변의 다른 기사위치 및 크기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민일보와 한라일보의 경우에는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과 이후에서 변화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민일보는 지면에 게재하는 기사가 적은 대신 기사크기가 타 신문에 비해 컸는데, 상대적으로 지면 위편에 있는 좌상기사와 우상기사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한라일보는 지면의 주요 5지점에 대한 기사크기에 비중을 더 두고 있었다. 동시에 한라일보는 전체적으로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각 지점의 기사위치 변화가 타 신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제주일보의 경우 1면은 발전기금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사회면의 경우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타 신문에 비해 눈에 띄게 부각되어졌던 기사크기가 발전기금 선정이후에는 비슷해 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통해 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된 신문이 선정되지 않은 신문보다는 신문 지면의 외형에 더 큰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변화에서 있어서는 기사들과 독서중력선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기보다는 단순히 기사크기만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한 외형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시기에 있어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 이루어진 이전과 이후 각각 1년만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외형변화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독서중력 형태를 알아봄에 기사의 위치와 기사의 크기만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신문 외형 변화를 알아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레이아웃의 변화 등 여타의 제 3의 변인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외변인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시기를 보다 확장하고, 제주지역 신문만이 아닌 보다 넓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으면 한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자에 의해 설정되어진 변인 이외의 가외변인들을 통제하는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수신자에 대한 연구와 매체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설계하여 상호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면 한다.



【참고논문】

- 강호수. “현대신문의 편집 추세와 한국 신문의 지면 개선방향.”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1. 동명정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2.
- 권혁순. “신문편집의 시각적 요소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영훈. “가로짜기 신문의 편집방향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희성. “신문편집디자인에 있어 색채조절 도입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동규. “좌우배치에 따른 영상에서의 화면구성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심 훈. “20세기 하반기의 미 신문 1면 보도에 대한 다양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0호(가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 정태철. “신문의 가로짜기 편집에 관한 문체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22집 1권. 경성대학교, 1998.
- 조영신 외. “가판페이지와 신문의 1면 다양성.”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6.
- 최운선. “뉴미디어시대, 신문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윤경. “신문편집의 시각적 독창성과 효과적 기사전달을 위한 지면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참고문헌】

- 강은미. 「디자인이 신문의 얼굴을 바꾼다」. 서울: LG상남언론재단, 2000.
- 금창연. 「편집레이아웃 2」. 서울: 독자와함께, 1996.
- 김두식. 「신문·잡지·단행본 레이아웃 분석」. 서울: 타래, 1993.

- 김영옥, 이은주 외. 「위기의 한국신문」.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5.
- 다니엘 리페 외 저, 배현석 역.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 박선홍, 최윤호 외. 「신문편집」. 서울: 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 박숙희, 정향진. 「신문광고 디자인」. 서울: 조형사, 1994.
- 박재영. 「신문 지면의 구성요소」. 서울: 미디어연구소, 2004.
- 손태규. 「서술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 신문정치면 비교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
 구소, 2004.
- 이배영 외 저, 한국미디어교육센터 역. 「멋진 편집 좋은 신문」. 한울아카데미,
 2001.
- 이권효. 「헤드라인 커뮤니케이션」. 서울: 북랜드, 2000.
- 이상우 외. 「현대신문제작론」. 나남출판, 1995.
- 이종수. 「뉴미디어시대 신문디자인: 영미신문의 시각혁명」. 서울: 한국언론연구
 원, 1996.
- 이재경. 「기사작성의 기초」. 서울: 나무와 숲, 2005.
- 임준수. 「신문은 편집이다」. 서울: 나남출판, 1995.
- 임영호.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2005.
- 조성현. 「편집이론과 기술」. 서울: 녹원출판사, 1990.
- 조영제, 권명광 외. 「디자인 사전」. 서울: 안그라픽스, 2000.
- 조의환. 「뉴욕타임스, 가디언, 조선일보의 편집디자인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
 소, 2004.
- 젠 화이트 저, 안상수 외 역. 「편집디자인」. 서울: 안그라픽스, 1996.
- 제민일보사. 「제민일보 스타일북」. 제주: 제민일보사, 2007.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5.
- _____. 「지역신문 마케팅 현황과 독자관리 프로그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5.
- 차재영, 문종대 외.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효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6.
- 찰스 왈쉬레서, 신디아 부식-스나이더 공저, 원유홍 옮김. 「디자인의 개념과 원
 리」. 서울: 안그라픽스, 1998.

- 최종수. 「한국신문편집론」. 서울: 총화각, 1980.
- 최진우. 「신문편집제작론」. 서울: 대광문화사, 1994.
- 한국언론재단. 「2004 한국의 지역신문」.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4.
- 한라일보사. 「한라일보 편집매뉴얼」. 제주: 한라일보사, 2006.
- Albert C. Book & C. Dennis Schick. 「Fundamentals of Copy & Layout」. Chicago: NTC Business Books, 1991.
- Beth rogers thompson, Brad thompson. 「Contemporary editing workbook」.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2000.
- Cecilia Friend, Don Challenger, Katherine C. McAdams. 「Contemporary editing」.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1999.
- Edmund C. Arnold. 「Designing the Total Newspap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 Howard I. finberg, Bruce D. Itule. 「Visual editing: a graphic guide for journalists」. Wadsworth Pub, 1990.
- Jan V. White. 「Editing by Design」. New York: R. R. Bowker Company, 1982.
- Joyce Rutter Kaye. 「Layout」. Rockport Publishers, Inc, 1998.
- J. rodney short and Bev dickerson. 「The newspaper: An alternative textbook」. California: David S. Lake Publishers, 1980.
- Louis Silverstein. 「Newspaper Design For The Tim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 Mario R. Garcia. 「Color in American Newspaper」. The Poynter Institute, 1986.
- _____. 「Contemporary Newspaper Design: A Structural Approach」. New Jersey: Prentice Hall A Division of Simon & Schuster Englewood Cliffs, 1987.
- Robert Bohle. 「Publication design for editors」. Prentice-Hall, Inc, 1990.

Sandra Lentz Devall. 「Desktop Publishing Style Guide」. Delmar Publishers, 1999.

The Society for News Design. 「The Best of Newspaper Design」. SND, 2000.

Theodore E. Conover. 「Graphic Communications Today」. West Publishing Company, 1995.

Tim Harrower. 「The newspaper design's handbook, fif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2002.

【참고기타】

<http://www.poynterextra.org> (포인터 연구소)

<http://www.cln.or.kr> (지역신문발전위원회)



【ABSTRACT】

Research on the forms of Reading Gravity in the pages of News Papers

- The operation of the subsidy project for the local press and its influence on layout of daily news papers in Jeju Island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es to investigate the subsidy project for the local press(the following : the subsidy project) operating for relieving imbalance between areas and fostering sound development of local news papers. For this, I divided news papers into two categories which is, one that is selected to receive the subsidy project and one that is not receiving it. Then, I tried to figure out reading gravity of each category as per selected pages of news paper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limited within daily news papers of Cheju island and among this, I made a selection of Jemin Ilbo, Jeju Ilbo and Halla Ilbo. The selected pages of the subject was limited to front pages and social pages and reading gravity has been compared and analysed by its articles for its editing locations and sizes.

To be more specific, 'Research topic 1' is to compare three news papers of its reading gravity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and then after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and 'Research topic 2' is to compare each three news papers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before and after. The numbers of articles for analysis were for front pages 1,260 articles and for social pages 1,544. All news papers were dealing more articles on social pages compared to front pag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articles were as follows; that there were not much differences between these three news papers on front pages for its disposition of articles and following this result, distances between each article and reading gravity were in similar patterns as well.

The size of articles had shown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 of articles upper-left and bottom-right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Further, after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articles located in centre had shown differences as well.

On the other hand, social pages had shown differences on distances between each articles and reading gravity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but not much differences had shown between three news papers after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For the size of articles,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Jemin Ilbo had its size emphasis among the three news papers. However, after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all three news papers had shown similar sizes of articles.

As a result, although small portion of it, I acknowledged that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equalized social pages of its form of daily news papers in Cheju Island.

Then having investigated each news papers 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before and after, generally all of the news papers had been changed a lot on front pages and social pages compared with non-receiving the subsidy project news paper.

The location of articles and its sizes has been changed a lot in Jemin Ilbo and Halla Ilbo which has been the news papers selected as the subsidy project compared with Jeju Ilbo which has not. However it cannot be easily judged and saying that Jemin Ilbo and Halla Ilbo is better off compared with Jeju Ilbo by its outlook of newspaper layout.

Compare with Jemin Ilbo, Halla Ilbo and Jeju Ilbo, as it was not that the former news papers edited all its articles close to the line of reading gravity compared with the latter news paper. Because it was simply that as the sizes of specific articles were enlarged, the disposition of articles around were influenced by it.

Keywords: reading gravity, the subsidy project for the local press, newspaper editing/layout/design

【부 록】

<부록 표-1>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1면 각 기사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분산분석표

선정 이전	1면	N	중력선 까지의 거리				가로선 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48	0	-	-	-	15.0	.0000	-	-
	제주	44	0	-			15.0	.0000		
	한라	45	0	-			15.0	.0000		
우상 지점	제민	49	21.3	7.0292	.329	.720	15.0	.0000	-	-
	제주	49	21.4	7.0509			15.0	.0000		
	한라	50	22.2	2.8198			15.0	.0000		
우하 지점	제민	39	0.2	7.7815	.345	.709	-2.9	3.8913	.470	.626
	제주	31	0.8	8.6281			-2.1	3.9196		
	한라	32	1.8	6.8494			-2.5	3.4880		
좌하 지점	제민	21	-24.2	6.4301	.650	.525	-5.5	5.2984	.830	.440
	제주	30	-21.9	4.1392			-4.0	3.5739		
	한라	23	-22.0	11.329			-4.9	3.1880		
중앙 지점	제민	11	-3.2	6.7460	1.149	.328	4.1	2.6535	.061	.941
	제주	15	-4.4	4.0515			4.1	1.1052		
	한라	16	-6.1	3.9385			4.3	2.0320		
중상 지점	제민	5	9.2	4.8696	1.840	.189	15	0	-	-
	제주	10	8.9	4.9892			15	0		
	한라	5	4.7	0.4472			15	0		
중우 지점	제민	4	1.6	3.2479	4.303	** .027	1.0	.0000	3.580	** .047
	제주	5	6.0	5.3012			1.4	1.8507		
	한라	16	5.9	1.6056			2.9	1.3425		
중하 지점	제민	20	-11.6	9.6222	1.126	.330	-0.9	6.4072	1.783	.176
	제주	29	-13.4	7.2919			-2.8	4.6274		
	한라	24	-15.3	7.5360			-4.0	4.7930		
중좌 지점	제민	6	-18.1	3.6479	1.198	.325	0.5	3.6286	1.044	.378
	제주	4	-16.0	1.0243			2.0	0.9129		
	한라	11	-15.0	3.4928			2.9	2.9522		

P< .05 *P< .01

<부록 표-2>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1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분산분석표

선정 이전	1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 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48	20.9	3.4201	3.156	** .046	22.6	5.6962	7.286	*** .001	426.3	115.7566	6.959	*** .001
	제주	44	19.8	2.8834			19.8	4.5068			344.0	102.5777		
	한라	45	21.3	2.6473			18.5	5.6207			359.0	121.0307		
우상 지점	제민	49	15.2	3.3820	.146	.864	18.7	5.5562	4.291	** .015	274.5	92.6297	2.835	.062
	제주	49	14.8	3.2419			19.4	5.7831			275.0	81.0415		
	한라	50	14.9	2.5542			16.2	5.6203			237.8	93.4533		
우하 지점	제민	39	13.9	3.2618	.153	.858	11.8	3.9350	.689	.505	153.7	52.8337	.084	.920
	제주	31	13.5	3.0102			12.8	3.6128			157.3	54.6474		
	한라	32	13.7	3.2586			12.0	3.4884			158.2	37.8186		
좌하 지점	제민	21	17.2	4.7122	2.965	.058	8.4	3.0726	4.441	** .015	131.6	39.7625	3.251	** .045
	제주	30	15.0	3.9572			11.1	3.2985			154.4	52.6354		
	한라	23	17.7	4.4079			10.0	3.2576			167.0	43.5312		
중앙 지점	제민	11	14.5	3.4273	3.675	** .034	15.6	5.3246	6.010	*** .005	214.7	63.1656	1.689	.198
	제주	15	15.5	1.3685			12.3	2.1286			188.2	12.6298		
	한라	16	16.9	2.1365			11.6	0.9295			196.4	26.7308		
중상 지점	제민	5	15.9	3.7477	1.471	.257	16.6	7.6333	.655	.532	228.3	86.4293	1.486	.254
	제주	10	17.0	4.8704			19.5	3.3204			248.0	41.2303		
	한라	5	20.1	2.3702			19.5	4.4441			291.0	60.9327		
중우 지점	제민	4	17.2	2.6500	.840	.445	10.1	1.4361	1.954	.166	174.2	33.9624	.328	.724
	제주	5	15.9	3.7477			10.4	2.0736			164.3	50.3849		
	한라	16	15.9	.0000			12.8	3.4423			180.4	36.5153		
중하 지점	제민	20	15.9	4.2121	.329	.721	13.1	5.2201	.749	.477	189.6	70.6276	.458	.634
	제주	29	15.7	4.1255			11.8	4.2703			171.6	60.4529		
	한라	24	16.6	3.2456			11.4	4.7132			182.0	68.1217		
중좌 지점	제민	6	17.7	2.7369	1.369	.280	11.1	3.2774	.616	.551	193.5	50.5588	.957	.403
	제주	4	13.3	5.3000			12.6	3.8759			147.1	70.6399		
	한라	11	16.4	4.4054			13.1	3.7623			192.8	60.4628		

P< .05 *P< .01

<부록 표-3> 지점별 발전기급 사업 선정이후 1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분산분석표

선정 이후	1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50	0	-	-	-	15.0	.0000	0	0
	제주	46	0	-			15.0	.0000		
	한라	45	0	-			15.0	.0000		
우상 지점	제민	50	22.0	2.9987	.809	.447	15.0	.0000	0	0
	제주	50	21.7	3.3943			15.0	.0000		
	한라	49	22.5	2.9189			15.0	.0000		
우하 지점	제민	35	0.9	8.4094	.157	.855	-1.1	4.3153	2.267	.109
	제주	37	1.3	5.1841			-2.7	3.4191		
	한라	33	0.3	7.9931			-2.9	3.3597		
좌하 지점	제민	32	-22.3	10.061	1.413	.249	-4.3	4.2409	.987	.377
	제주	26	-19.1	10.337			-2.9	3.6963		
	한라	29	-22.7	3.6240			-3.8	2.7767		
중앙 지점	제민	5	-3.2	6.5155	.396	.676	4.0	1.3693	1.433	.255
	제주	16	-5.7	5.6199			3.7	1.2633		
	한라	12	-5.5	5.0527			5.2	3.4588		
중상 지점	제민	0	-	-	.021	.889	-	-	-	-
	제주	5	7.3	4.8683			15.0	.0000		
	한라	8	7.0	2.7646			15.0	.0000		
중우 지점	제민	6	3.7	4.1989	1.842	.189	2.4	1.6315	.080	.923
	제주	6	4.6	4.1679			2.0	0.7746		
	한라	8	7.5	3.3097			2.2	2.0863		
중하 지점	제민	10	-7.3	7.0834	2.051	.138	1.3	3.1524	2.083	.134
	제주	27	-13.5	8.8274			-2.3	5.3736		
	한라	24	-10.4	8.9508			-1.9	4.5033		
중좌 지점	제민	2	-14.3	6.0104	.078	.926	3.5	0.7071	.730	.520
	제주	2	-15.3	1.7678			2.5	1.4142		
	한라	5	-14.6	0.7503			3.1	0.6519		

P< .05 *P< .01

<부록 표-4> 지점별 발전기급 사업 선정이후 1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분산분석표

선정 이후	1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50	21.7	2.8849	3.452	**	21.3	5.7539	1.345	.264	447.4	122.7424	7.644	***		
	제주	46	20.5	2.6442			20.3	4.7572			364.7	90.2294				
	한라	45	20.3	3.2532			19.6	5.3145			376.0	121.7344				
우상 지점	제민	50	15.4	2.8811	.798	.452	18.4	7.2319	.699	.499	265.2	87.8374	.845	.432		
	제주	50	15.4	3.2473			17.8	4.5780			264.2	73.4831				
	한라	49	14.7	2.7080			17.1	4.5634			246.7	76.8215				
우하 지점	제민	35	15.4	2.9781	6.935	***	13.3	4.0191	1.595	.208	190.9	60.8828	8.753	***		
	제주	37	13.5	2.6727			11.9	3.3380			152.4	46.9264				
	한라	33	13.0	2.9896			12.1	3.1727			146.2	31.5359				
좌하 지점	제민	32	19.2	4.4138	10.50	***	11.1	5.1844	.583	.560	197.6	95.0521	1.879	.159		
	제주	26	14.1	3.9498			12.1	3.7224			160.2	73.2049				
	한라	29	16.3	4.4638			11.1	2.8137			173.1	46.4835				
중앙 지점	제민	5	18.0	2.9029	3.182	.056	10.7	1.5614	3.802	**	191.1	25.7571	4.882	**		
	제주	16	15.2	2.6500			13.2	2.9270			194.3	5.7634				
	한라	12	15.9	.0000			11.3	0.7525			179.5	11.9651				
중상 지점	제민	0	-	-	.338	.573	-	-	.000	.985	-	-	251.8	38.0347	1.176	.301
	제주	5	18.0	4.7405			17.2	5.1551			282.5	55.4007				
	한라	8	19.2	2.7430			17.3	4.2929								
중우 지점	제민	6	17.6	2.8081	2.686	.097	10.2	2.9609	.741	.492	175.9	42.8933	.231	.796		
	제주	6	15.9	3.3523			11.6	2.5407			178.3	43.2782				
	한라	8	13.9	2.7430			12.2	3.4155			160.2	68.4540				
중하 지점	제민	10	13.8	3.7058	.395	.675	15.9	3.0019	2.053	.138	207.7	46.2737	1.398	.255		
	제주	27	14.7	2.6838			12.5	5.2628			174.8	68.8665				
	한라	24	14.8	3.4874			12.9	4.4474			176.7	39.5378				
중좌 지점	제민	2	21.2	.0000	2.867	.134	12.1	6.2225	.047	.955	256.5	131.9178	1.307	.338		
	제주	2	13.3	3.7477			12.9	3.3941			147.9	26.9832				
	한라	5	15.9	3.7477			11.7	4.2735			172.8	57.8587				

P< .05 *P< .01

<부록 표-5>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사회면 각 기사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분산분석표

선정 이전	사회 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50	0	-	-	-	15.0	.0000	-	-
	제주	48	0	-			15.0	.0000		
	한라	45	0	-			15.0	.0000		
우상 지점	제민	49	22.5	3.4714	16.932	***	15.0	.0000	-	-
	제주	47	21.5	1.3831			15.0	.0000		
	한라	40	25.4	4.2670			15.0	.0000		
우하 지점	제민	35	0.2	4.7935	4.085	**	-5.8	3.9979	2.481	.089
	제주	39	-1.6	3.1875			-7.3	2.7965		
	한라	24	1.5	5.4194			-5.7	3.5385		
좌하 지점	제민	32	-25.3	2.7719	.471	.626	-8.4	2.7686	1.782	.174
	제주	34	-24.0	9.4051			-8.2	3.0815		
	한라	33	-25.0	2.6092			-7.2	2.3508		
중앙 지점	제민	10	-6.3	5.0027	5.623	***	2.2	2.1339	3.638	**
	제주	6	-5.7	5.6330			2.2	1.5027		
	한라	33	-1.33	4.4721			3.7	1.9031		
중상 지점	제민	2	13.8	4.5962	2.818	.091	15.0	.0000	-	-
	제주	3	6.8	3.1754			15.0	.0000		
	한라	13	8.6	3.1871			15.0	.0000		
중우 지점	제민	22	7.9	5.1221	2.184	.119	2.2	2.1090	.399	.673
	제주	32	7.6	4.2475			2.0	1.9520		
	한라	26	10.2	5.7222			1.7	2.1985		
중하 지점	제민	27	-6.6	8.1172	5.015	***	-3.4	4.7612	6.349	***
	제주	18	-10.8	5.2877			-3.2	3.7505		
	한라	39	-12.0	6.5598			-6.3	3.2213		
중좌 지점	제민	21	-15.0	2.5080	4.071	**	1.144	2.0066	5.972	***
	제주	8	-15.7	2.0886			.814	1.8880		
	한라	34	-13.3	2.8387			2.883	2.2086		

P< .05 *P< .01

<부록 표-6>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전 사회면 각 기사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분산분석표

선정 이전	사회 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50	22.0	3.8259	.304	.739	17.5	5.5390	21.759	***	379.9	133.3587	20.778	.000
	제주	48	21.4	2.4345			21.4	6.3323			453.9	135.8405		
	한라	45	21.4	5.6367			13.8	4.5388			286.7	101.6320		
우상 지점	제민	49	14.4	3.4643	25.37	***	17.2	5.2133	2.250	.109	250.8	111.7115	12.100	***
	제주	47	14.8	2.1925			15.6	4.2229			229.2	71.2440		
	한라	40	10.8	2.6270			15.4	3.9571			164.9	52.5876		
우하 지점	제민	35	13.6	2.6601	2.240	.112	11.2	3.1785	.432	.650	150.4	44.3982	1.594	.208
	제주	39	12.5	2.5756			10.8	2.8486			131.9	50.1019		
	한라	24	12.3	3.1030			11.4	2.3687			137.6	36.9090		
좌하 지점	제민	32	16.4	4.7327	.323	.725	9.5	2.7927	.531	.590	153.8	70.5157	.241	.787
	제주	34	15.6	4.3148			10.1	3.1046			149.2	37.6173		
	한라	33	15.7	4.2498			10.2	2.3597			158.4	51.3871		
중앙 지점	제민	10	15.4	3.0085	.432	.652	15.1	3.3566	7.446	***	224.2	20.1508	10.761	***
	제주	6	14.1	2.7369			14.5	4.1394			189.7	33.3528		
	한라	34	14.6	2.6991			11.8	2.0951			168.7	36.3415		
중상 지점	제민	2	16.3	6.9296	1.363	.286	20.3	3.1820	3.234	.068	319.1	88.4591	5.741	**
	제주	3	23.0	6.1199			19.9	11.650			410.0	112.0926		
	한라	13	19.8	3.8297			13.0	3.3737			250.3	65.6844		
중우 지점	제민	22	14.2	2.5267	9.118	***	11.2	1.9966	6.879	***	158.9	40.5500	3.018	.055
	제주	32	14.1	2.5576			14.4	4.2529			183.2	48.8449		
	한라	26	11.5	2.7575			14.8	3.9351			161.0	30.9184		
중하 지점	제민	27	12.2	2.8669	5.297	***	14.6	4.6792	7.950	***	174.1	60.3412	.844	.434
	제주	18	12.7	3.2207			15.0	3.7495			184.2	79.6207		
	한라	39	14.5	3.1296			11.4	3.2258			162.7	48.0764		
중좌 지점	제민	21	16.2	4.2164	2.196	.120	12.0	2.7374	1.859	.165	189.5	46.3342	.068	.934
	제주	8	13.3	4.0064			14.8	4.3510			179.3	90.8159		
	한라	34	14.2	4.0323			13.5	4.0549			187.5	72.1339		

P< .05 *P< .01

<부록 표-7>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사회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분산분석표

선정 이후	사회 면	N	중력선 까지의 거리				가로선 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49	0	-	-	-	15.0	.0000	-	-
	제주	50	0	-			15.0	.0000		
	한라	49	0	-			15.0	.0000		
우상 지점	제민	49	22.1	2.9685	1.085	.341	15.0	.0000	-	-
	제주	48	21.7	2.6678			15.0	.0000		
	한라	48	22.5	2.3357			15.0	.0000		
우하 지점	제민	40	-2.8	4.9982	.588	.557	-8.4	3.3726	1.426	.245
	제주	42	-3.0	3.9581			-7.8	2.8311		
	한라	33	-1.8	5.8906			-7.2	2.0120		
좌하 지점	제민	28	-25.9	3.1592	.591	.556	-8.7	2.8494	1.035	.359
	제주	38	-26.1	2.8496			-8.6	2.5979		
	한라	30	-25.3	3.4810			-7.9	2.2328		
중앙 지점	제민	13	-5.2	2.6341	.102	.903	1.8	1.9101	1.150	.328
	제주	5	-5.4	6.4143			1.5	2.3948		
	한라	21	-5.8	3.8699			2.7	1.9758		
중상 지점	제민	2	8.0	4.2426	.473	.649	15.0	.0000	-	-
	제주	1	10.5	-			15.0	-		
	한라	5	12.7	6.1705			15.0	.0000		
중우 지점	제민	30	6.4	6.1477	.497	.610	1.6	1.8067	1.664	.195
	제주	35	7.5	4.4696			2.4	1.7162		
	한라	33	7.6	5.0634			1.5	2.6404		
중하 지점	제민	25	-12.3	4.9433	7.154	***	-4.8	4.7780	4.129	**
	제주	16	-6.9	5.0356			-1.6	3.6283		
	한라	22	-12.6	5.2979			-5.2	3.7774		
중좌 지점	제민	15	-13.9	2.4943	1.704	.191	2.2	1.4932	2.118	.129
	제주	27	-15.3	2.4466			0.9	2.2741		
	한라	19	-15.1	2.6190			1.3	1.8346		

P< .05 *P< .01

<부록 표-8>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이후 사회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분산분석표

선정 이후	사회 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제민	49	21.7	3.3119	.344	.709	19.3	6.6365	1.234	.294	420.4	166.2576	2.826	.062
	제주	50	21.3	3.6296			17.9	5.7045			375.5	129.8814		
	한라	49	21.2	3.0187			17.5	5.6556			356.6	106.7463		
우상 지점	제민	49	15.0	3.0146	3.841	**	16.6	4.9096	1.833	.164	249.6	92.4481	5.631	***
	제주	48	15.0	2.9607			15.2	4.7347			224.7	75.2534		
	한라	48	13.6	2.7424			14.9	4.0920			197.3	58.4960		
우하 지점	제민	40	13.8	2.6295	1.150	.320	9.5	2.8382	2.078	.130	126.9	31.9904	.107	.898
	제주	42	13.4	2.9236			10.3	2.5056			130.5	38.0224		
	한라	33	12.8	3.0571			10.6	2.0411			129.1	34.8676		
좌하 지점	제민	28	17.4	5.1723	1.389	.254	9.6	2.7920	.160	.852	157.9	39.9454	.266	.767
	제주	38	15.6	3.6859			9.7	2.5519			149.9	50.8892		
	한라	30	16.0	4.6883			9.9	2.1202			150.7	47.3216		
중앙 지점	제민	13	14.7	4.4099	.302	.741	12.9	1.8913	.174	.841	187.7	59.9123	.409	.668
	제주	5	13.8	2.9029			12.6	2.9026			168.5	26.6717		
	한라	21	15.0	2.2182			12.5	1.7137			187.4	34.1461		
중상 지점	제민	2	21.2	7.4953	.615	.577	13.3	1.7678	5.026	.064	274.3	61.8365	.135	.877
	제주	1	15.9	-			15.0	-			238.5	-		
	한라	5	15.4	6.0276			17.2	1.4328			238.4	89.3959		
중우 지점	제민	30	14.1	2.5412	1.812	.169	12.5	3.0300	1.902	.155	174.7	47.6892	.086	.918
	제주	35	14.4	2.7484			12.2	2.3195			170.5	32.4396		
	한라	33	13.2	2.9188			13.5	3.5532			174.5	57.0396		
중하 지점	제민	25	13.4	2.7025	3.617	**	13.1	4.5072	4.882	**	173.1	75.3916	.530	.592
	제주	16	11.9	2.3702			16.4	3.5117			191.5	61.2770		
	한라	22	14.5	3.3123			12.5	3.7883			170.8	56.1297		
중좌 지점	제민	15	13.1	4.4192	3.886	**	14.4	3.9934	1.754	.182	177.8	50.8532	1.197	.309
	제주	27	15.7	3.7423			12.5	2.9626			192.7	67.8894		
	한라	19	12.7	3.9789			14.2	4.1899			166.2	45.5264		

P< .05 *P< .01

<부록 표-9>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제민 일보	1면	N	중력선 까지의 거리				가로선 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8	0	-	-	-	15.0	.0000	-	-
	이후	50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49	21.3	7.0292	-.555	.580	15.0	.0000	-	-
	이후	50	22.0	2.9987			15.0	.0000	-	-
우하 지점	이전	39	0.2	7.7815	-.320	.750	-2.9	3.8913	-1.9	.058
	이후	35	0.9	8.4094			-1.1	4.3153		
좌하 지점	이전	21	-24.2	6.4301	-.755	.454	-5.5	5.2984	-.859	.395
	이후	32	-22.3	10.061			-4.3	4.2409		
중앙 지점	이전	11	-3.2	6.7460	.005	.996	4.1	2.6535	.071	.944
	이후	5	-3.2	6.5155			4.0	1.3693		
중상 지점	이전	5	9.2	4.8696	-	-	15.0	.0000	-	-
	이후	0	-	-	-	-	-	-	-	-
중우 지점	이전	4	1.6	3.2479	-.864	.413	1.0	.0000	-1.419	.199
	이후	6	3.7	4.1989			2.4	1.6315		
중하 지점	이전	20	-11.6	9.6222	-1.261	.218	-0.9	6.4072	-1.005	.324
	이후	10	-7.3	7.0834			1.3	3.1524		
중좌 지점	이전	6	-18.1	3.6479	-1.125	.304	0.5	3.6286	-1.095	.335
	이후	2	-14.3	6.0104			3.5	0.7071		

P< .05 *P< .01

<부록 표-10>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1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제민 일보	1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8	20.9	3.4201	-1.366	.175	22.6	5.6962	1.105	.272	426.3	115.7566	-.872	.385
	이후	50	21.7	2.8849			21.3	5.7539			447.4	122.7424		
우상 지점	이전	49	15.2	3.3820	-.315	.753	18.7	5.5562	.195	.846	274.5	92.6297	.508	.613
	이후	50	15.4	2.8811			18.4	7.2319			265.2	87.8374		
우하 지점	이전	39	13.9	3.2618	-2.058	** .043	11.8	3.9350	-1.660	.101	153.7	52.8337	-2.816	*** .006
	이후	35	15.4	2.9781			13.3	4.0191			190.9	60.8828		
좌하 지점	이전	21	17.2	4.7122	-1.611	.113	8.4	3.0726	-2.115	** .039	131.6	39.7625	-3.01	*** .004
	이후	32	19.2	4.4138			11.1	5.1844			197.6	95.0521		
중앙 지점	이전	11	14.5	3.4273	-2.012	.064	15.6	5.3246	1.965	.070	214.7	63.1656	.795	.440
	이후	5	18.0	2.9029			10.7	1.5614			191.1	25.7571		
중상 지점	이전	5	15.9	3.7477	-	-	16.6	7.6333	-	-	228.3	86.4293	-	-
	이후	0	-	-	-	-	-	-	-	-	-	-	-	-
중우 지점	이전	4	17.2	2.6500	-.202	.845	10.1	1.4361	-.026	.980	174.2	33.9624	-.066	.949
	이후	6	17.6	2.8081			10.2	2.9609			175.9	42.8933		
중하 지점	이전	20	15.9	4.2121	1.353	.187	13.1	5.2201	-1.591	.123	189.6	70.6276	-.731	.471
	이후	10	13.8	3.7058			15.9	3.0019			207.7	46.2737		
중좌 지점	이전	6	17.7	2.7369	-1.732	.134	11.1	3.2774	-.317	.762	193.5	50.5588	-1.09	.318
	이후	2	21.2	.0000			12.1	6.2225			256.52	131.9178		

P< .05 *P< .01

<부록 표-11>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제주 일보	1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4	0	-	-	-	15.0	.0000	-	-
	이후	46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49	21.4	7.0509	-.245	.807	15.0	.0000	-	-
	이후	50	21.7	3.3943			15.0	.0000		
우하 지점	이전	31	0.8	8.6281	-.290	.773	-2.1	3.9196	.675	.502
	이후	37	1.3	5.1841			-2.7	3.4191		
좌하 지점	이전	30	-21.9	4.1392	-1.366	.178	-4.0	3.5739	-1.075	.287
	이후	26	-19.1	10.337			-2.9	3.6963		
중앙 지점	이전	15	-4.4	4.0515	.705	.486	4.1	1.1052	.965	.343
	이후	16	-5.7	5.6199			3.7	1.2633		
중상 지점	이전	10	8.9	4.9892	.571	.577	15.0	.0000	-	-
	이후	5	7.3	4.8683			15.0	.0000		
중우 지점	이전	5	6.0	5.3012	.477	.646	1.4	1.8507	-.727	.485
	이후	6	4.6	4.1679			2.0	.7746		
중하 지점	이전	29	-13.4	7.2919	.043	.966	-2.8	4.6274	-.370	.713
	이후	27	-13.5	8.8274			-2.3	5.3736		
중좌 지점	이전	4	-16.0	1.0243	-.669	.540	2.0	.9129	-.544	.615
	이후	2	-15.3	1.7678			2.5	1.4142		

P< .05 *P< .01

<부록 표-12>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1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제주 일보	1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4	19.8	2.8834	-1.279	.204	19.8	4.5068	-.496	.621	344.0	102.5777	-1.021	.310
	이후	46	20.5	2.6442			20.3	4.7572			364.7	90.2294		
우상 지점	이전	49	14.8	3.2419	-.849	.398	19.4	5.7831	1.545	.125	275.0	81.0415	.696	.488
	이후	50	15.4	3.2473			17.8	4.5780			264.2	73.4831		
우하 지점	이전	31	13.5	3.0102	.068	.946	12.8	3.6128	1.024	.309	157.3	54.6474	.395	.694
	이후	37	13.5	2.6727			11.9	3.3380			152.4	46.9264		
좌하 지점	이전	30	15.0	3.9572	.898	.373	11.1	3.2985	-1.022	.311	154.4	52.6354	-.349	.729
	이후	26	14.1	3.9498			12.1	3.7224			160.2	73.2049		
중앙 지점	이전	15	15.5	1.3685	.404	.689	12.3	2.1286	-1.016	.318	188.2	12.6298	-1.766	.088
	이후	16	15.2	2.6500			13.2	2.9270			194.3	5.7634		
중상 지점	이전	10	17.0	4.8704	-.401	.695	19.5	3.3204	1.033	.320	248.0	41.2303	-.171	.867
	이후	5	18.0	4.7405			17.2	5.1551			251.8	38.0347		
중우 지점	이전	5	15.9	3.7477	.008	.994	10.4	2.0736	-.810	.439	164.3	50.3849	-.498	.631
	이후	6	15.9	3.3523			11.6	2.5407			178.3	43.2782		
중하 지점	이전	29	15.7	4.1255	1.061	.293	11.8	4.2703	-.581	.564	171.6	60.4529	-.182	.856
	이후	27	14.7	2.6838			12.5	5.2628			174.8	68.8665		
중좌 지점	이전	4	13.3	5.3000	.000	1.000	12.6	3.8759	-1.100	.925	147.1	70.6399	-.015	.989
	이후	2	13.3	3.7477			12.9	3.3941			147.9	26.9832		

P< .05 *P< .01

<부록 표-13>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한라 일보	1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5	0	-	-	-	15.0	.0000	-	-
	이후	45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50	22.2	2.8198	-.447	.656	15.0	.0000	-	-
	이후	49	22.5	2.9189			15.0	.0000		
우하 지점	이전	32	1.8	6.8494	.793	.431	-2.5	3.4880	.411	.682
	이후	33	0.3	7.9931			-2.9	3.3597		
좌하 지점	이전	23	-22.0	11.330	.317	.753	-4.9	3.1880	-1.287	.204
	이후	29	-22.7	3.6240			-3.8	2.7767		
중앙 지점	이전	16	-6.1	3.9385	-.337	.739	4.3	2.0320	-.824	.418
	이후	12	-5.5	5.0527			5.2	3.4588		
중상 지점	이전	5	4.7	0.4472	-1.816	.097	15.0	.0000	-	-
	이후	8	7.0	2.7646			15.0	.0000		
중우 지점	이전	16	5.9	1.6056	-1.538	.138	2.9	1.3425	.953	.352
	이후	8	7.5	3.3097			2.2	2.0863		
중하 지점	이전	24	-15.3	7.5360	-2.027	** .048	-4.0	4.7930	-1.484	.145
	이후	24	-10.4	8.9508			-1.9	4.5033		
중좌 지점	이전	11	-15.0	3.4928	-.596	.560	2.9	2.9522	-.114	.911
	이후	5	-14.6	.7503			3.1	.6519		

P< .05 *P< .01

<부록 표-14>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1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한라 일보	1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5	21.3	2.6473	1.695	.094	18.5	5.6207	-.917	.361	359.0	121.0307	-.663	.509
	이후	45	20.3	3.2532			19.6	5.3145			376.0	121.7344		
우상 지점	이전	50	14.9	2.5542	.446	.657	16.2	5.6203	-.829	.409	237.8	93.4533	-.516	.607
	이후	49	14.7	2.7080			17.1	4.5634			246.7	76.8215		
우하 지점	이전	32	13.7	3.2586	.952	.345	12.0	3.4884	-.128	.898	158.2	37.8186	1.382	.172
	이후	33	13.0	2.9896			12.1	3.1727			146.2	31.5359		
좌하 지점	이전	23	17.7	4.4079	1.192	.239	10.0	3.2576	-1.288	.204	167.0	43.5312	-.481	.633
	이후	29	16.3	4.4638			11.1	2.8137			173.1	46.4835		
중앙 지점	이전	16	16.9	2.1365	1.604	.121	11.6	.9295	1.073	.293	196.4	26.7308	2.031	.053
	이후	12	15.9	.0000			11.3	.7525			179.5	11.9651		
중상 지점	이전	5	20.1	2.3702	.622	.546	19.5	4.4441	.908	.384	291.0	60.9327	.258	.802
	이후	8	19.2	2.7430			17.3	4.2929			282.5	55.4007		
중우 지점	이전	16	15.9	.0000	2.966	*** .007	12.8	3.4423	.412	.684	180.4	36.5153	.951	.352
	이후	8	13.9	2.7430			12.2	3.4155			160.2	68.4540		
중하 지점	이전	24	16.6	3.2456	1.817	.076	11.4	4.7132	-1.112	.272	182.0	68.1217	.332	.741
	이후	24	14.8	3.4874			12.9	4.4474			176.7	39.5378		
중좌 지점	이전	11	16.4	4.4054	.211	.836	13.1	3.7623	.661	.519	192.8	60.4628	.621	.545
	이후	5	15.9	3.7477			11.7	4.2735			172.8	57.8587		

P< .05 *P< .01

<부록 표-15>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제민 일보	사회 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50	0	-	-	-	15.0	.0000	-	-
	이후	49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49	22.5	3.4714	.547	.585	15.0	.0000	-	-
	이후	49	22.1	2.9685			15.0	.0000		
우하 지점	이전	35	0.2	4.7935	2.637	**	-5.8	3.9979	3.040	***
	이후	40	-2.8	4.9982			-8.4	3.3726		
좌하 지점	이전	32	-25.3	2.7719	.737	.464	-8.4	2.7686	.480	.633
	이후	28	-25.9	3.1592			-8.7	2.8494		
중앙 지점	이전	10	-6.3	5.0027	-.682	.502	2.2	2.1339	.388	.702
	이후	13	-5.2	2.6341			1.8	1.9101		
중상 지점	이전	2	13.8	4.5962	1.300	.323	15.0	.0000	-	-
	이후	2	8.0	4.2426			15.0	.0000		
중우 지점	이전	22	7.9	5.1221	.890	.378	2.2	2.1090	1.174	.246
	이후	30	6.4	6.1477			1.6	1.8067		
중하 지점	이전	27	-6.6	8.1172	3.031	***	-3.4	4.7612	1.097	.278
	이후	25	-12.3	4.9433			-4.8	4.7780		
중좌 지점	이전	21	-15.0	2.5080	-1.307	.200	1.1	2.0066	-1.746	.090
	이후	15	-13.9	2.4943			2.2	1.4932		

P< .05 *P< .01

<부록 표-16>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제민 일보	사회 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50	22.0	3.8259	.395	.694	17.5	5.5390	-1.479	.142	379.9	133.3587	-1.340	.183
	이후	49	21.7	3.3119			19.3	6.6365			420.4	166.2576		
우상 지점	이전	49	14.4	3.4643	-.787	.433	17.2	5.2133	.577	.566	250.8	111.7115	.055	.956
	이후	49	15.0	3.0146			16.6	4.9096			249.6	92.4481		
우하 지점	이전	35	13.6	2.6601	-.246	.806	11.2	3.1785	2.467	**	150.4	44.3982	2.653	**
	이후	40	13.8	2.6295			9.5	2.8382			.016	126.9		
좌하 지점	이전	32	16.4	4.7327	-.796	.430	9.5	2.7927	-.044	.965	153.8	70.5157	-.273	.786
	이후	28	17.4	5.1723			9.6	2.7920			157.9	39.9454		
중앙 지점	이전	10	15.4	3.0085	.426	.675	15.1	3.3566	1.974	.062	224.2	20.1508	1.837	.080
	이후	13	14.7	4.4099			12.9	1.8913			187.7	59.9123		
중상 지점	이전	2	16.3	6.9296	-.679	.567	20.3	3.1820	2.720	.113	319.1	88.4591	.587	.617
	이후	2	21.2	7.4953			13.3	1.7678			274.3	61.8365		
중우 지점	이전	22	14.2	2.5267	.113	.911	11.2	1.9966	-1.740	.088	158.9	40.5500	-1.25	.217
	이후	30	14.1	2.5412			12.5	3.0300			174.7	47.6892		
중하 지점	이전	27	12.2	2.8669	-1.493	.142	14.6	4.6792	1.181	.243	174.1	60.3412	.054	.957
	이후	25	13.4	2.7025			13.1	4.5072			173.1	75.3916		
중좌 지점	이전	21	16.2	4.2164	2.144	**	12.0	2.7374	-2.131	**	189.5	46.3342	.717	.479
	이후	15	13.1	4.4192			14.4	3.9934			.040	177.8		

P< .05 *P< .01

<부록 표-17>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제주 일보	사회 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8	0	-	-	-	15.0	.0000	-	-
	이후	50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47	21.5	1.3831	-.548	.585	15.0	.0000	-	-
	이후	48	21.7	2.6678			15.0	.0000		
우하 지점	이전	39	-1.6	3.1875	1.639	.105	-7.3	2.7965	.685	.495
	이후	42	-3.0	3.9581			-7.8	2.8311		
좌하 지점	이전	34	-24.0	9.4051	1.315	.193	-8.2	3.0815	.682	.497
	이후	38	-26.1	2.8496			-8.6	2.5979		
중앙 지점	이전	6	-5.7	5.6330	-.058	.955	2.2	1.5027	.563	.587
	이후	5	-5.4	6.4143			1.5	2.3948		
중상 지점	이전	3	6.8	3.1754	-1.00	.423	15.0	.0000	-	-
	이후	1	10.5	-			15.0	-		
중우 지점	이전	32	7.6	4.2475	.086	.932	2.0	1.9520	-.762	.449
	이후	35	7.5	4.4696			2.4	1.7162		
중하 지점	이전	18	-10.8	5.2877	-2.183	**	-3.2	3.7505	-1.264	.216
	이후	16	-6.9	5.0356			-1.6	3.6283		
중좌 지점	이전	8	-15.7	2.0886	-.365	.717	0.8	1.8880	-.107	.915
	이후	27	-15.3	2.4466			0.9	2.2741		

P< .05 *P< .01

<부록 표-18>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제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제주 일보	사회 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8	21.4	2.4345	.183	.855	21.4	6.3323	2.932	***	453.9	135.8405	2.919	***
	이후	50	21.3	3.6296			17.9	5.7045			375.5	129.8814		
우상 지점	이전	47	14.8	2.1925	-.456	.649	15.6	4.2229	.393	.695	229.2	71.2440	.298	.766
	이후	48	15.0	2.9607			15.2	4.7347			224.7	75.2534		
우하 지점	이전	39	12.5	2.5756	-1.423	.159	10.8	2.8486	.739	.462	131.9	50.1019	.143	.887
	이후	42	13.4	2.9236			10.3	2.5056			130.5	38.0224		
좌하 지점	이전	34	15.6	4.3148	-.034	.973	10.1	3.1046	.679	.500	149.2	37.6173	-.074	.941
	이후	38	15.6	3.6859			9.7	2.5519			149.9	50.8892		
중앙 지점	이전	6	14.1	2.7369	.208	.840	14.5	4.1394	.839	.423	189.7	33.3528	1.141	.283
	이후	5	13.8	2.9029			12.6	2.9026			168.5	26.6717		
중상 지점	이전	3	23.0	6.1199	1.000	.423	19.9	11.650	.364	.751	410.0	112.0926	1.325	.316
	이후	1	15.9	-			15.0	-			238.5	-		
중우 지점	이전	32	14.1	2.5576	-.473	.638	14.4	4.2529	2.674	***	183.2	48.8449	1.267	.210
	이후	35	14.4	2.7484			12.2	2.3195			170.5	32.4396		
중하 지점	이전	18	12.7	3.2207	.751	.458	15.0	3.7495	-1.108	.276	184.2	79.6207	-.296	.769
	이후	16	11.9	2.3702			16.4	3.5117			191.5	61.2770		
중좌 지점	이전	8	13.3	4.0064	-1.604	.118	14.8	4.3510	1.675	.103	179.3	90.8159	-.454	.653
	이후	27	15.7	3.7423			12.5	2.9626			192.7	67.8894		

P< .05 *P< .01

<부록 표-19>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중력선 및 가로선까지의 거리 T-분석표

한라 일보	사회 면	N	중력선까지의 거리				가로선까지의 거리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5	0	-	-	-	15.0	.0000	-	-
	이후	49	0	-	-	-	15.0	.0000	-	-
우상 지점	이전	40	25.4	4.2670	3.983	***	15.0	.0000	-	-
	이후	48	22.5	2.3357			15.0	.0000		
우하 지점	이전	24	1.5	5.4194	2.184	**	-5.7	3.5385	2.027	**
	이후	33	-1.8	5.8906			-7.2	2.0120		
좌하 지점	이전	33	-25.0	2.6092	.365	.716	-7.2	2.3508	1.180	.243
	이후	30	-25.3	3.4810			-7.9	2.2328		
중앙 지점	이전	33	-1.3	4.4721	3.845	***	3.721	1.9031	1.920	.060
	이후	21	-5.8	3.8699			2.692	1.9758		
중상 지점	이전	13	8.6	3.1871	-1.900	.076	15.0	.0000	-	-
	이후	5	12.7	6.1705			15.0	.0000		
중우 지점	이전	26	10.2	5.7222	1.827	.073	1.7	2.1985	.199	.843
	이후	33	7.6	5.0634			1.5	2.6404		
중하 지점	이전	39	-12.0	6.5598	.393	.696	-6.3	3.2213	-1.177	.244
	이후	22	-12.7	5.2979			-5.2	3.7774		
중좌 지점	이전	34	-13.3	2.8387	2.303	**	2.9	2.2086	2.666	**
	이후	19	-15.1	2.6190			1.3	1.8346		

P< .05 *P< .01

<부록 표-20> 지점별 발전기금 사업 선정 전후 한라일보 사회면 각 기사의 가로, 세로 길이 및 넓이 T-분석표

한라 일보	사회 면	N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평균	sd	F	p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좌상 지점	이전	45	21.4	5.6367	.275	.784	13.8	4.5388	-3.435	***	286.7	101.6320	-3.248	***
	이후	49	21.2	3.0187			17.5	5.6556			.001	356.6		
우상 지점	이전	40	10.8	2.6270	-4.765	***	15.4	3.9571	.496	.621	164.9	52.5876	-2.705	***
	이후	48	13.6	2.7424			14.9	4.0920			.008	197.3		
우하 지점	이전	24	12.3	3.1030	-.578	.565	11.4	2.3687	1.366	.177	137.6	36.9090	.880	.383
	이후	33	12.8	3.0571			10.6	2.0411			.008	129.1		
좌하 지점	이전	33	15.7	4.2498	-.238	.812	10.2	2.3597	.454	.651	158.4	51.3871	.620	.537
	이후	30	16.0	4.6883			9.9	2.1202			.008	150.7		
중앙 지점	이전	34	14.6	2.6991	-.543	.589	11.8	2.0951	-1.385	.172	168.7	36.3415	-1.898	.063
	이후	21	15.0	2.2182			12.5	1.7137			.008	187.4		
중상 지점	이전	13	19.8	3.8297	1.864	.081	13.0	3.3737	-2.642	**	250.3	65.6844	.314	.758
	이후	5	15.4	6.0276			17.2	1.4328			.018	238.4		
중우 지점	이전	26	11.5	2.7575	-2.28	**	14.8	3.9351	1.307	.197	161.0	30.9184	-1.083	.283
	이후	33	13.2	2.9188			13.5	3.5532			.026	174.5		
중하 지점	이전	39	14.5	3.1296	.110	.913	11.4	3.2258	-1.172	.246	162.7	48.0764	-5.94	.555
	이후	22	14.5	3.3123			12.5	3.7883			.026	170.8		
중좌 지점	이전	34	14.2	4.0323	1.285	.205	13.5	4.0549	-.569	.572	187.5	72.1339	1.162	.251
	이후	19	12.7	3.9789			14.2	4.1899			.026	166.2		

P< .05 *P< .01